朝鮮日報
夕刊
二日(月)
本紙朝夕刊十面

北中軍政統轄의 最高機關을設置

何氏가抱懷한解決策

【北平二日發電通至急報】何應欽氏가 抱懷한 北中解決案은 北平 或은 保定에서 北中五省最高首腦部會議를 開催하야 北中實情 特히 日滿兩國과의 關係를 기피 檢討하야 現在의 環境下에서의 最善의 北中安定辦法을 協議하려는것으로 大體 華北五省行政委員會 或은 北方政務委員會의 名稱下에 北中五省의 軍政權一切를 統轄과는 最高機關設置가 內定되어잇다 또 吳佩孚、王揖唐等在野要人諸氏를 迎하야 最高諮問機關을 組織하려는 意向도잇서 北方自治派 모다 一步進하여잇는바 注目할만하다 (寫眞은 何應欽氏)

【北平一日發電通】何應欽氏一行은 濟南에서 韓復榘氏와 協議하고 北平에 入하리라고 豫測되여섯스나 津浦線開封에 赴하야 河南省主席劉峙氏와 會見하고 何事를 協議한後 飛行機로 保定에赴하야 商震氏와 會見하고 來平하기로되것은 這間에 中央側이 宋哲元氏에게對하야 和戰兩樣의 準備를 進行하는것이라고 解釋되는데 一行의 北平到着後는 意外의 時局轉換을 招來하리라고 豫想되다 卽 情勢下에잇서서는 自治派가 宋哲元氏의 意向如何에 拘泥치안코 自治를 宣佈하게될는지 或은 自治問題가 別個의 形式으로 變하야 中央政府와 氣脈을 通하는것이될는지 北中時局에 一大變調를招來할것으로確定하리라한다

何氏鄭州서談

【北平二日發電通】何應欽氏는二日午後五時前後 保定에 到着하야 當分同地에 滯在할 模樣인데 途中 鄭州에서 如左히 北上任務를 말하엿다

現在의 北方情勢는 極度로 緊張하야 人心의 動搖가 甚하기때문에 北方各當局及 人民團體로부터 政府에 對하야 速히 解決辦法을 講究하기를 要請해왓는데 北方情勢는 자못複雜하야 實地視察을하지안코는 事實의 眞相을 把握키難하다 故로 政府는 나를 派遣한것이다 北方各當局과 詳細히 討論協議하야 實情에 適合한 妥當한 解決辦法을 發見하야써 焦眉의 急에 切迫된 內部問題를處理하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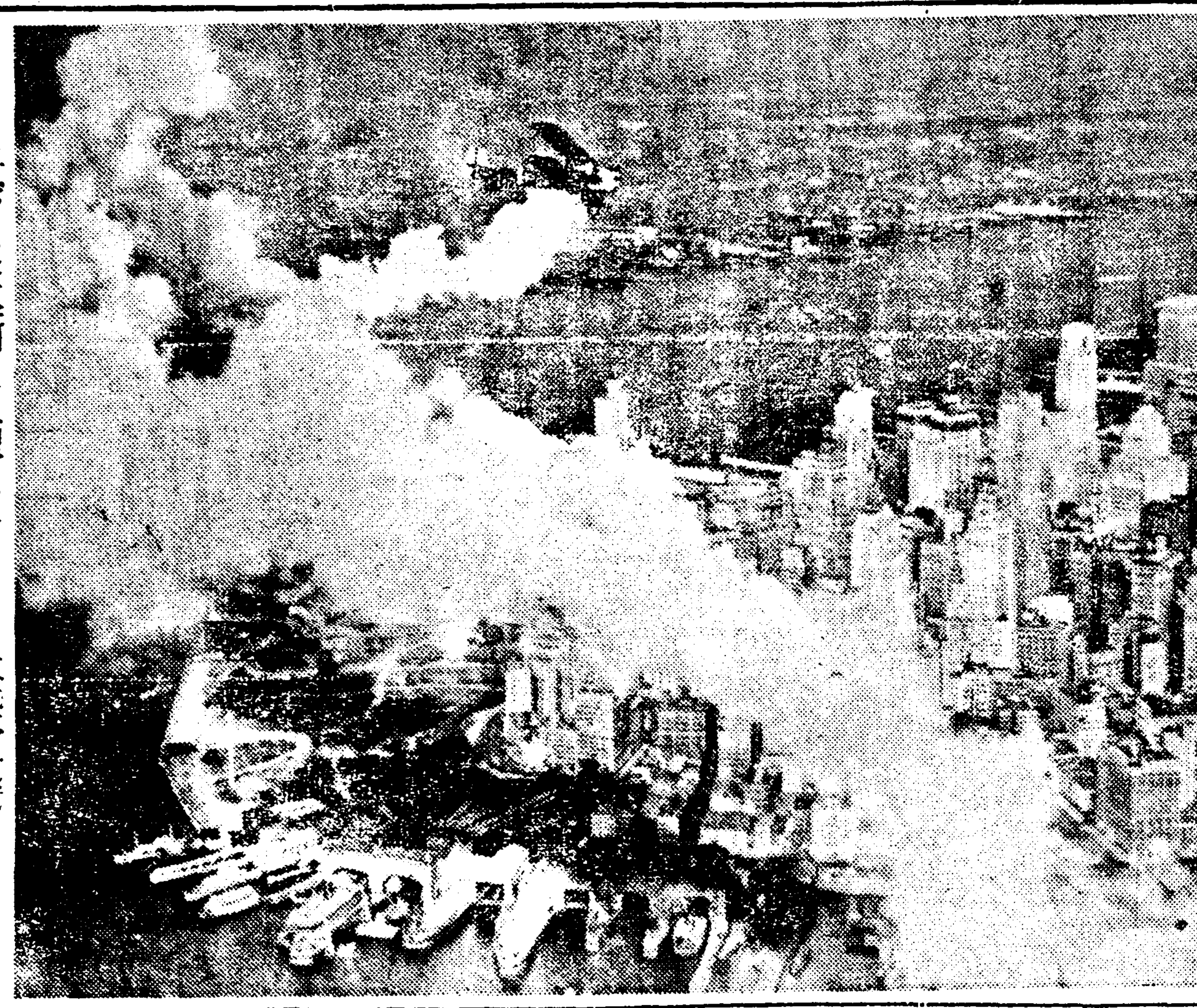
何應欽의 北上과 華北政局의新展開

蔣氏의重要提案 政府首腦部承認

【上海一日發聯合】蔣介石氏는軍政部長 何應欽氏를 北平에 派遣함에 앞서 三十日 午前午後의 二回에 亘하야 軍官學校官邸에 政府首腦會議를 開催하고 行政院長代理 孔祥熙氏 立法院長孫科氏以下 列席下에 北中時局收拾策에 對하야 協議를 遂하엿는데 席上에서 蔣介石氏는民衆의 要望과 日本政府의 提示한 三原則을 實質的으로 承認할바 게업다는 旨를 强調하고 時局解決의 具體的提案을 愼重審議한結果 滿場一致로 蔣介石氏提案을 承認하야 何應欽氏 陳儀氏를 急遽 北上시케서 宋哲元氏及 天津駐屯軍과 交涉시기는 同時에 他方 唐有壬及殷同氏로 하여곰 須磨總領事雨宮武官과 折衝케하야 右具體案을 提示하고 諒解를 求하게된 것이다 蔣介石氏가 電光石火的으로 如斯한 處置를 取한것은 左의 理由에 依한것으로 解釋된다

一、宋哲元氏가 二十九日 國民政府에 與한 爆彈通告는 中央과의 絶緣通告로 보지안코 오히려 中央에 對한 援助要請이라고 看做하야 急速히 北中에 對하야 救助의손을 뻐치지안는데는 時機를 失하나 收拾할수업는 事態를 招來할 憂慮가잇는것

二、一中全大會를 압두고 國民政府로서 北中問題에 對하야 어떠한 解決辦法을講究하지안는데잇서서는 中央의 責任을 追究바며 蔣介石氏의 立場을 顯著히 不利로 잇글 念慮가 잇는것



紐育摩天街에 煙幕을펴는 米陸軍機

商震氏의麾下軍隊 自治彈壓을開始

戰區內各縣長自治不參加誓約

【天津二日發電通】商震氏麾下의 第三十二軍 唐國良部隊는 一日午後 滄州에入하야 自治運動彈壓을 開始하엿다 그리고 冀東自治를 提唱하고잇는 楊村住民도 亦是商震軍及 宋哲元部隊의 彈壓을만나 多數의 首謀者는天津으로 逃亡하여왓다

商氏國民政府에報告

【南京二日發電通】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는 一日國民政府에 對하야 戰區內의 各縣長은 冀東自治政府에 絶對參加치안케다는 旨를 誓約하여왓다고 報告하엿다 (寫眞은 商震氏)

鐵道接收着手

【天津三十日發電通】自治宣布後 戰區內는 靑天白日旗 揭揚을禁하고 新國旗를 目下考案中이다 그리고 自治委員會의 鐵路監理處는 內務、總務、財務、機務、工務의 各科로分하야 二十九日各科長을 任命하고 山海關新河間의 北寧鐵路接收任務에 着手하엿다 同區間의 鐵道收入은 每月七十萬元、支出四十萬元으로 差引三十萬元의 純益을 擧하고잇다

中央、武力手段으로 宋軍攪亂을企圖

【北平一日發電通】南京政府는宋哲元氏가 萬若自治를 宣言하야 中央과의 關係를 離脫하게되면 石友三、馮玉祥氏를 討伐軍總司令에任命하야 一擧에宋哲元軍을 粉碎할 意圖를 가지고잇던바 이와가티 武力으로써 할때에는 北中協定에 依하야 日本軍과 正面衝突을 招來할것임으로써 現地作戰을 避하고서 第二十九軍의 內部攪亂에 全力을傾注케하야 宋氏를全然孤立에 陷케할 策謀를 가지고 이미 二十九軍各將領에게 某種의 豫備的工作을 해왓다고 한다 卽 二十九軍首腦部의 거의全部는 馮玉祥氏의 舊部下이오 特히 同軍中의 最精銳인 第三十八師長으로 現在察哈爾省主席代理로잇는 張自忠氏와 如한이는 關係가 가장 密接하므로 이方面의 分解는 가장 要하는바이라고 한다

賣國誤謬勿犯 國府、宋氏에게嚴訓

【南京三十日發電通】宋哲元氏의 自治宣言의 時機가 드디어 切迫되는데 狼狽한 國民政府當局은 極力 이阻止를策하고 三十日다시 宋哲元氏에게對하야 中央에서 最善의 對策을 考慮中임으로써 輕擧妄動하야 賣國과 如한 誤謬를犯치말지어다 라고 嚴重한 訓令을 發하고또 閻錫山、韓復榘氏等에게 對해서도 極力自治運動에 參加지안토록 거듭嚴命하엿다

自治運動解消를 國民政府期待

【上海一日發聯合】北中自治運動의 分解를 策하야 北上한 何應欽氏는 二日 保定에서 商震氏와會見하고
一、北中自治運動에 參加지 안흘것
二、絶對的으로 中央에 服從할것
三、今後 地方自治運動에 對한 絶對的彈壓
을 誓約시키기로 되엿다 그리고 國民政府는 何應欽氏의 北上에 크게 期待를가지고 北中自治運動의 內容은 이로써 一切 解消될것이라고 斷定하고잇다

一中全會議開會

一中全會議의 重要議案

【南京二日發聯合】國民黨第一次中央執監全體會議는 二日午前九時 中央黨部大禮堂에서 開會、第一次全國代表大會에서 選出된中央執行委員及監察委員의 宣誓就任式을 擧行한다음 開會式에 올마 第一會議廳에서 豫備會議를 開催하고 主席團及 秘書長의人選及會期를 決定하엿다

【南京二日發聯合】今回의 一中全會에서는 議長及 各部의 人選 國民政府 主席以下 政府各部의 改組를 合하는 外에 內外의 重要政策에 對하야 大綱方針을 決定할터이다 一中全會의 重要議案은 如左하다
一、中央執行及 監察兩常務委員會의 選任
一、中央政府 各部委員의 選任
一、國民政府 主席 林森氏及 行政 立法 司法 考試 監察各委員長 行政院 各部長의改選
一、其他黨部內의 人事異動
一、五會大會로부터 移牒된議案에 關한 國民大會召集日確定
一、華北對策에 伴하는 國內統一辦法

中國共產黨 北中攪亂開始

時局에乘하야黨勢를擴大 實行期에는軍政機關占領

各機關에指令發送

【天津一日發電通】압서 第三인터나쇼날駐中代表指導下에 去十月十八日 北平에서 中國共産黨 北中各省代表大會를 開催하고 華北赤化工作의 具體的協議를한 中國共產黨은 北中時局緊張에 作하야 드디어 北中을 混亂에 陷케하려고 河北攪亂活動辦法을 決定하야 十一月二十日 各機關에右指令을發하고 活動을 開始하엿다 指令要項은 如左하다
一、河北省을 北平天津의 三隊에分하야 時局을 混亂의 形勢에導하고 서로呼應하야 援助할것
二、人民自衛의 名義를 利用하야 民衆을 煽動해서 黨員을 擁護하고 團結을 强固히할것
三、各地의 軍隊及 警官을 買收 又는紅軍에 投降케할것
四、決死隊를 組織하야 反動分子를 糾彈殺害할것
五、華北全省을 二十八區로 分하야 指導員을 다시充實케할것
六、各區內의 鐵道其他交通網을 詳細히 調査하야 將來의 進展에 遺漏업게할것
七、實行期에는 第一着手로 軍政機關을 占領할것
八、各區內混亂의 際에는 總動員하야 安全保護를 布告하고 如何한 軍隊의 進入도 拒否하고 不得已한 境遇에는 交戰防衛할것
九、市部에서는 最後의 境遇에 電信、電話、電燈、水道等의 破壞作業에 當하고 專門知識을 가진 特別指揮者를 準備할것
十、所要經費는 모다 第三인터내쇼날에서 負擔하야 不安이 업게할것

陸軍定期異動 朝鮮關係分

陸軍定期異動은 今二日 正式發令되엇는데 朝鮮關係分은 如左하다

朝鮮軍司令官 陸軍大將 植田謙吉
補軍事參議官
第五師團長(廣島) 陸軍中將 小磯國昭
補朝鮮軍司令官
朝鮮軍參謀長 陸軍少將 大串敬吉
補○○司令官
熊本教導學校長 陸軍少將 佐枝義重
補朝鮮軍參謀長
第二十師團參謀 步兵中佐 尾崎義春
任步兵大佐 補秋田聯隊區司令官
朝鮮軍司令部附 砲兵中佐 山本務
補野砲兵第二十四聯隊長(久留米)
朝鮮軍參謀 步兵少佐 富田直亮
補陸軍大學校教官

行政院長에蔣氏 外交部長에張群

兩氏를各其任命?

【上海一日發聯合】汪精衛氏의辭職은 蔣介石氏以下 國民政府首腦部가 이미諒解한터로 一中全會는 異議업시 이것을 承認하고 同時에左의 異動을決定發令할터이다

軍事委員長 蔣介石
任國民政府行政院長
湖北省主席 張群
任外交部長

人事·集會

▲安井誠一郎氏(專賣局長) 四日午後三時五分 京城驛發 京城 全州 大邱 各支局管內를 視察코 十二日 午後三時卄分 歸任豫定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英國의建艦案도 日本을差別待遇 (十五)

雲崗生

이러케 생각해보면 日本은 英國의 建艦宣言案에 對해서도 邈然히 同意할수 업는事情을 斟酌할수가 잇슬것이다。所謂、建艦宣言案의 要領으로 하는바를 여기 다시 한번 드러보면 그것은

一、各國은 兩海軍條約滿期後에 잇서서의 建艦量을 自主的으로 宣言한다。
二、但、宣言前에 各國은 서로 內示하야 建艦量을 協定한다。
三、一旦、宣言한 建艦量은 一年의 豫告期間이 업시는 變更치못한다。

等等、三項이 그要領이다。

그런데、日本의 主張과 英國의 建艦宣言案과가 相容할수업다는것은 이三項要領에 明白키 나타낫다。何故오하면 (一)비록 形式은 自主的宣言이라고 할지도 第二項의 內示協定의 規定에 依하야 日本은 英、米兩國이 承認치 아니 하는 建艦量을 가질수업시 되여 잇다는것이 그理由의 하나、(二)비록 一年의 豫告期間이라 할지라도 그만한 豫告期間을 부처노흐면 新海軍協定成立後에 잇서서의 日本의 隨機應變的建艦權을 束縛한다는것이 그理由의 하나、(三)도한 設使、兩海軍條約滿期後에 잇서서의 日本은 비록 英米와 同量의 建艦權을 가진다고할지라도 滿期前에 잇서서의 『英米兩國對日本의 艦船保有量의差』는 그대로 永久히 繼續될것이니까 그리되는날이면 日本은 未來永久까지라고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新條約의 繼續하는날까지는 日本은 亦是、英米와 同量을 가질수업다는것이하나、等等、日本의 立場으로 보아서 承認할수업는 三大缺點이 잇기 때문이다。

그런데第二理由로 드러말한 隨機應變的建艦權 이라는것은 一見하여서는 그리 重要치 아니한드시 보이나 現下의 國際情勢를 考慮에 너어 가지고 日本의 立場을 생각해본다면 자못 重大한바가 잇다。그것은(一)米國의 所謂、渡洋作戰主義에 依한 海軍擴張의 進捗(二)領土再分割問題를 契機로하여서의 極東에 對한 列國의 注目의 集中、(三)發展途中에 잇는 日本에 對하여서의 白人列國의 猜疑激化等等을 考慮에 너어 생각하면 極東의 覇權을 掌握하야 名實共히 東洋의 安定勢力으로 自處하려는 日本에 對해서는 何時何處에서 何國을 相對로 一戰을 決해야만 될 非常時에 逢着 할는지 모른다는 것이 現下日本의 處地다。그런데 一旦、有事時에 是非를 決할者는 오직 武力에 잇슬뿐이오、그 以外의 千言萬語의 外交的『제스츄어』는 아모所用 업는것이다。그러기때문으로 現下의 日本은 不斷의 注意가 잇서야 하고、常時의 準備가 잇서야 한다고 日本自身은 생각하고 잇다。그런데 이른바 不斷의注意와常時의準備는 여기 말 하는 隨機應變的自由建艦權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到底히 그實效를 期할수가 업는것이다。따라서日本은 一片條約에 얽매여서 何等의 策이 업시 束手하고 안저다가 悔悟를 千載後에 남기는것보다는 차라리 無條約狀態에 잇서서의 建艦競爭의 苦를 甘忍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잇다。日本의 이 決心은 오늘에 비로소 생긴 決心이 아니요、멀리는國際聯盟脫退時에 발서 생긴 決心이오、다음은 華府條約의 廢棄에 依하야 그決心은 더욱 鞏固하게 되것이다。華府條約의 廢棄는 무엇을 意味하느냐하면 『日本에 低率을 賦與한 이런 條約은 차라리 업는것이 낫다。그러고、日本의 軍備均等主張에 맛는 新海軍協定의 成立이 如意치 못하면 차라리 無條約狀態에 도라가서 列國과의 建艦競爭을 甘忍하겟다』를 意味하는것이다。

그러기때문으로 오는本會議에 잇서서 日本과의 新海軍條約이 無難히 成立하려면 그것은 英米가 日本의 軍備均等에對한 主張을 名實共히 承認하는 一事가 잇슴을 前提로해서만 可能한 일이다。그런데 米國은 前述한 이미 알바와가티 日本의 軍備均等權主張에 對해서는 絶對로 反對요、他方、英國은 그老獪한 外交手段에 依하야 日本에對하야 均等權의 이름을 주되、實을 주지안코저함이 이와 가트다하면 이 한點으로만 보아도 本會議가失敗에 歸할것은 大槪、疑心업는일이라고할것이다。(繼續)

▲訂正=前回題目은『一九三九年엔、日米의優劣顚倒』라고할것이 잘못되엿숩니다。

澄宮殿下께 新御稱號下賜

【東京電話電通】澄宮崇仁親王殿下께서는 二日 宮中賢所大前에서 御成年式을 擧行하시엿는데 天皇陛下께압서는 同日午前七時 鈴木侍從長을 勅使로 靑山澄宮邸에 御差遣 新宮家를 御創立하신 殿下께 左와如한 御稱號를 下賜하압시엿다는旨를 宮內省에서 發表하고 同時에 官報號外로써 告示되엿다

宮內省告示 第二十八號
崇仁親王殿下께 三笠宮의 稱號를 下賜하압시다
昭和十年十二月二日 宮內大臣 湯淺倉平

軍事參議官以下의 親補式擧行

【東京電話電通】天皇陛下께압서는 二日午後一時半 宮中鳳凰間에 出御하시와 岡田首相侍立 軍事參議官 鎭守府長官 艦隊司令長官 師團長의 親補式을 擧行하시엿다 朝香、東久邇兩中將宮殿下를 爲始하야 諸將星에 對하야 各其親補의 勅語를 賜하압시고 岡田首相으로부터 順次로左의職記를 授하엿다 任地에在한親補官의 職記는 內閣에서 陸海軍省을 經由하야 傳達할 手續을 取하엿다

陸軍中將 大勳位 鳩彦王
陸軍中將 大勳位 稔彦王
補軍事參議官(各通)
陸軍大將 從三位勳一等功二級 西義一
陸軍大將 從三位勳一等功三級 植田謙吉
陸軍大將 從三位勳一等功四級 伯爵 寺內壽一
海軍大將 從三位勳一等 末次信正
補軍事參議官(各通)
海軍中將 正四位勳一等功四級 米內光政
補橫須賀鎭守府司令長官
海軍中將 正四位勳二等功五級 百武源吾
補佐世保鎭守府司令長官

『何應欽氏北上은 北中空氣를惡化』

日本軍部의態度硬化

【天津一日發電通】何應欽氏의北上에 對하야 日本駐屯軍部의空氣는 異常하게 硬化하야 그가 灤州事件의 直後에 抗日指令을 發한幾多의 證據를 提示하고 그의 態度如何로는 斷然한 處置를 取할것이라고 떠드는 將校도잇고 一方 民族團體中에는 自治宣言을 爲하야 不穩한 計畫까지잇다 그런데 何氏의 北上은 事態를 도로혀 惡化시키는 結果가되어 北中事態 混亂의前奏曲을 演할것이 아닌가 觀測된다

天津市長程氏 自治宣言發出

【天津一日發聯合】天津市長程克氏는 一日午後十時半 事實上天津市의 自治를 宣言한 電通을 發出하야 南京政府에通達하엿다

八面鋒

◇年產 百萬圓以上의 大金鑛이 朝鮮에만 六個處、全朝鮮의一年間 金產額 五千萬圓이라고
◇나라으로 치면 五百萬石을팔어야 五千萬圓인데、땅속에서 잠간하야 나오는것이니 鑛에 熱中할것도 當然。
◇鑛에 熱狂햇슴인가 東拓서는 鑛을 抵當잡고 百五十萬圓을 貸出햇더니 成績이 시원치못해서 鑛稅를 안불고 잇다가 取消를 當하고 딴者가 出願을하야 百五十萬圓이 飛去夕陽風이라고。
◇이것은 鑛山의 虛無한 一場面。
◇발서부터 街頭에는 歲暮大賣出의 旗幟、이것을 보고야 歲月 빠른줄을 알사람도 한둘이 아닐듯。
◇軍縮本會議 이제부터 本次準備。크리스마스때 한번 놀準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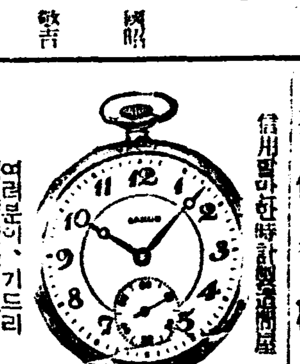
크리스마스까지 前哨戰을始終

軍縮會議에對한觀測

【倫敦一日發聯合】日本海軍軍縮代表의 英京着을 二日에 압두고 또米國代表隊員의 入京을四日에 압두고 英國政府軍縮代表部에서는 一日日曜日임에도 不拘하고 協議會議를 開催하야 兩國代表隊員의 入京에 際해서는 호어英外相이 特別 支障을 生하지안는限 親히 出迎하는것과 會議講堂인 퀸렌스하우스의 整理等에 對하야 協議하엿다 또 確聞하건대 호어外相은 伊에紛爭을 中心으로한 歐洲政局의 緊張이 軍縮會議開會前에 重大한 心理的影響을 及할것을 極力 回避하려고 石油禁止에 關한 聯盟十八國委員會의 開會를 十二日로 延期한것도 右方針에 基한것이라고 解釋된다 그리고 米國全權團이 軍縮會議豫定開會日인 十二月六日까지에 充分히 着英할수잇는 日字에 任命하면서 開會期를 九日로 延期하고 出發期를 延期하야 三十日 午前零時에 겨우 紐育을 出發한것은 會議策戰을 考究할 必要에 基한것이라고 解釋되며 米國代表部員이 出發에 際하야『會議는 적어도 三個月은 걸릴것이다』라고 述하엿다는 報道와아울러 생각하면 米國의 對會議方針이 발서 旣存比率維持만 一貫한것이 아닌것을 想起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하는편이 消息通間에 적지안타 他方 日本의 方針에 對하여도 여러가지 臆測을 行하고잇다 萬若 日本이 豫備會商當時의 主張을 機會的으로 反復하는것뿐이라면 何等 如斯한 大規模의 全權團을 特派할 必要는 업슬터인데 이有力한 全權團을 보내는것은 반드시 重大한 折衝을 展開할 意圖에 基한것이라고 볼바가업다 라고 보는者도잇서서 大槪크리스마스까지는 前哨戰으로 一九三六年의 新年以後에 重大展開를 豫期하는편이 만타

大阪着名問屋案內

鷹印 作業服 カタログ送呈
工場用 各作業服 コール天ズボン ジャンパー 其他各種 卸問屋
大阪天王寺區東平野町二ノ三四 宇鷹一夫商店 電話天王寺一九七七番 振替大阪一四〇〇九番

信用할만한時計製造問屋

時計、貴金屬 寶石類、眼鏡、眼器 記念品 다이아몬드 ダイヤモンド 메다루 メタル
여러분이、기드리시던新時計送呈 振替大阪八壹一四一番
大阪九條通一丁目八一 仲庭時計商店 電話西(四七〇七)(三〇一一)番

年賀ゴム印
年賀狀은目下全國的流行中 趣味의スタンプ年賀印 彫刻式年賀印에限함
各種ゴム印販賣店募集・利益多大義行好評・商報呈郵券二錢要
ゴム印大卸 製造卸 大阪南區鰻谷町六十八番地 合名會社 吉川商店 電話南二〇九番

スプリングと鋼線
山添發條株式會社 大阪市南區內安堂寺町二丁目 電話東六六四二一 振替大阪八一九〇〇

安くて一番良い 萬力作業服
生地見本及カタログ送呈 大阪市梅田新道 太平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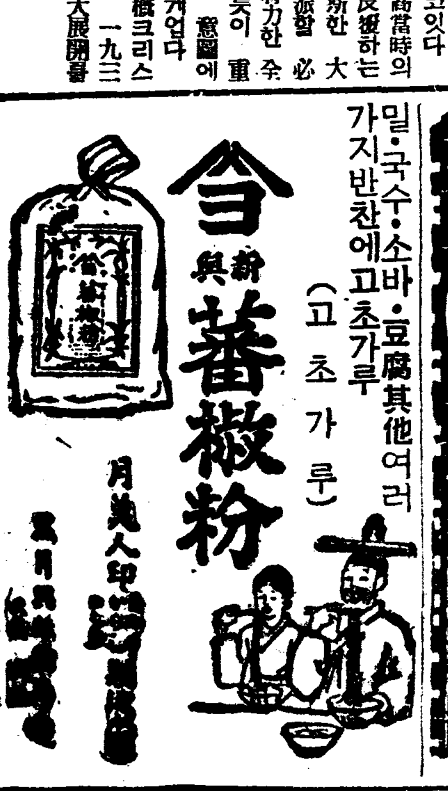
人絹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綢、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南局第一三一號函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
(商報送呈) 見本小包五十錢(切手)
庄津村合資會社 電話南二四八 二九 振替大阪一三八三三番

(印入專門) タオル ハンカチーフ フロシキ 各木綿 (商報進呈)
大阪市北久太郎町心齋橋筋 植田仁本店 電話船場四〇四〇

シレネギター 最良ノ品質ト最低ノ値段!!

(營業者に限り卸價表呈) ナカオオルガン・軍隊ラッパ NMI樂器・ハーモニカ 製造卸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樂器店 電話戎五一二三番

食料紅 オブラード バター 製菓材料 菓實香料 商報呈
大阪市浪速區川添町大仁一番 西本商店

밀·국수·소바·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추가루

新興 蕃椒粉 (고 초 가 루)
月美人印

死刑囚二十名等의 明日·間共控訴公判

檢擧後六年、控訴後二個年에 傍聽禁止로 分離審理

지나간 소화오년 사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滿共滿洲總局)의 해체이후 만주에잇든 조선인공산운동이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에 합류되는 한중간공작으로 동만주(東滿洲)일대에 이러난오삽폭동(五·卅暴動)과 그뒤 중국의 리립삼(李立三)코-스가 청산되든 즉후까지 중국공산당 만주위원회의 지령으로 동년 십일월로서아、혁명기념때 까지에 그절정에 이르른 무장폭동-이 두사건으로 해서 만주에잇든조선인 공산운동자 배동건(裵東健) 주현갑(周現甲) 리동선(李東鮮)등사백여명이 간도룡정(間島龍井)의 총령사관 경찰의 손을거처 동년 십이월 이십오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너머와가지고 거기서 예심을거처 그중이백칠십칠명이 소화칠년 십이월이십팔일 치안유지법위반、살인、살인미수、강도、강도미수、방화、총포화약취체법위반、시체유기등 수많흔 죄명으로 공판에 회부되엇섯고 다시 일년을 지나 소화팔년 구월 이십오일 경성지방법원의 특별대법정에서 제일회공판이 열리어 주현갑등 사형수 열여덜명 무긔징역 아홉명 그박게 십오년、십삼년해서 전부 유죄의 구형을 하엿고 다시 동년 십이월 이십일일 언도공판에는 사형수가네명이 더하여 스물두명、그박게 열여섯명이 무죄가되고나 머지 전부 무기유기의 판결을 바든 소위간도공산당(間島共産黨)의 력사적으로보나 지역적으로보나 그류를 차출수업는대 사건은 우죽도 세상의 기억이 새롭다 그들 사형수 스물두명 무기징역 십오년징역의 십삼년징역에해서 설혼한명이 소화구년 일월에 경성 복심법원에 공소를 하야래 묵어오다가 이번이지나서 비로소 명삼일에열리게되엇다 이것을 사건당초인 소화오년부터 친다면 륙년을끄러오든것이다 시일로 보아도력사에 드물다고 아니할수 업는 사건이다.

당일 출장하게될 피고는 사형수가운데 리성철(李聖徹)최관옥(崔寬玉) 두명은 이미옥사를하엿고 무기징역의 세명이공소를 취하하엿기때문에 다음에 기록한 스믈여섯명뿐이다 그리고 당일공판을 마튼재판장은적(狄)재판장 검사는향천(香川)검사 법정은 역시 특별대법정이다

그리고 사건이사건이니만치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고등계원이하 정사복경관이 다수출동하여 경계를 하게될터이요 방청은처음 일반에게 허락할터이나 사실심리에 드러가서는 공개금지를 하게될터이요 또편의상 피고일부를 분리하여가지고 약일주일동안 속행하게될터이라한다

(死刑)▲周現甲▲李東鮮▲金光默▲高河隣▲金應洙▲金鳳翼▲金東渦▲朴金哲▲權泰山▲劉泰順▲許玩珍▲盧昌浩▲朴東弼▲朴寶燮▲池運浩▲閔昌植▲曹秉律▲金龍鑑▲李鋼立▲金今南 (無期)▲金成淳▲車炳喆▲安應洙 (十五年)▲元容學▲李昌瑞 (十三年) 朴仁煥

大陸의高氣壓南襲 全朝鮮의氣溫急降

밤사이에 륙도내외가 긔온이 떠러저 本格的嚴寒이迫頭

겨울추이도 본격적으로 닥처왓다 조선남해방면에서 동해남으로 우울한 저긔압(低氣壓)이 떨처잇고、북으로는 붕중국、몽고(蒙古)방면에 우세한 대륙의 고긔압(高氣壓)이 세력을 떠기시작하여 재작삼십일밤의 비가 개이면서 이일오후부터는 서북풍이불며 찬긔운이 몰아 오기시작햇든것이다 그동안은 겨울이와도 겨울갓지안케 따뜻한날이 계속하야 지나기도 수월터니이제부터 긔압의 배치가 완전히엄동의 자세를 가지게되여 북방의찬긔운이 반도를 엄습케된것이다 하늘의 일이라 압흐로 천후가 또 어떠케 변할런지는 몰으나 대체로 이제부터 시작하여 동지섯달의 추이가 닥처오는 세이다 삼일아츰에도 날은맑게개이엇스나 의연히 서북풍이 불고 잇다 이긔온은 밤사이에 약륙도가량떠러지고 경긔지방은 령도내외이나 좀더내릴모양이다

마장을 전조선각우편국소에 나누어주어일반리용자의 편의를도모하며 립시로 집중국(集中局)과 분배국(分配局)을 적당히특

반가운賞與金打鈴! 總督府卅二萬圓

판임관이십삼할 용인이십오할 內務局長의二千圓이最高額

이해도 저무러 십이월에 들어서자 각관청회사은행등에는 상여금타령이 이야긔거리의 중심이되여잇다 그런데 관청중에가장많흔 관리를포용하고잇는 총독부의금년도 지급상여금 총액은 모다삼십이만원 가량으로칙임관(勅任官)급이 삼만원 주임관(奏任官)급이 십일만원 판임관급이 십팔만원이며 그룹으고 용인이 이십오할 판임관이 이십삼할 주임관이 십팔할로서 하급에는좀만코 상급에는 좀적다 그중판임관은 이십칠할 주임관은이십사할이최고로서 최고액을 바들이는우도(牛島)내무국장의 이천원이 오를이라한다 오는십륙일 사령이내려여십칠일 량일에 폐처 현금이지불되고 체신(遞信)철도 전매국(專賣局)각지방관청에도 이예(例)에준할것으로 이십이일의 일요일은、세말경긔가 최고조에 달하야 거리의 사람들은 대단히번잡할것이다 더욱정에긔증통판임관(判任官)락 백명에 대하야는 삼십삼일부로 발령할 것이다

城大總長就任 高山博士受諾

【長崎電話聯合】장기의과대학장(長崎醫大學長)고산정웅(高山正雄)씨는 성대(城大)상야법문학부장(上野法文學長)에게로삼십일밤 성대총장에 취임한다는 뜻을 정식으로 언명하엿다고한다 씨는 작년삼월에 구주(九州)의전교장으로부터 장기의대학장으로 취임하야 학위매매 의옥사건으로 란마와가티된 그대학의 정리의중임을 마터서 성공한인물이라고한다

歲色將暮

遞信局에서는벌서 年賀郵便準備

각종선전을하기시작하여 來二十日부터接受

례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오는 이십일부터 년하우편특별취급(年賀郵便特別取扱)을 개시할터인데 금년에는 경제계의 세남이 조흔데 말아면하우편도증가될것으로 고보 체신국에서는 선전용「포스타」일만매와 세우는 간판(看板)이천개를 전조선 각처에 배부하고 또년하 우편부칠때에 쓰는 색지(色紙)륙십

高專러비에優勝한 普專軍(昨日運動欄參照)

설하야 변하우편국의 정확과 신속을 도모키로 되엿다한다

映畫「春風의밤」 제작자를위로

지난여름부터 촬영을 시작하야 약반년동안의 제작시일을 드려가지고 방금 조선극장에서 상영중인 안석영(安夕影)씨원작각색 박긔채(朴基采)씨감독 양세웅(梁世雄)씨 촬영의 문예영화 춘풍(春風)이 금번도 조선영화계에 적잔은 수확을 어든것이라하여 일반에게 호평을밧고잇는데 이에그들의 공을사하는의미에서 작긔시일장소에서「영화춘풍의밤」을 열기로 되엿다한다 이에 뜻을가치하여 하로의 위안을하고저 하는이는 회비오십전을지참하고 정각까지 지정한장소로와주기 바란다고한다

▲시일 三日下午七時 장소 長谷川町美須能라 회비 五十錢 (當日持參)

發起人 李基世 安鍾和 金復鎭 朴基采 徐恒錫 金乙漢 李泰俊 崔承一 李石薰 咸大勳 李無影 柳致眞 洪海仁 崔獨鵑 金起林 李昌用 沈熏(無順)

市內道路改築에 土地坪數割賦課

竹添町에는起工前賦課로不平 三線에十一萬餘圓

경성부에서는 특별수익세 토지평수할조례(特別收益稅土地坪數割條例)를 발포후 처음으로 죽첨정아현리(竹添町阿峴里)도로관계자 사백륙십사호에대하야 사만구천일백삼십일원륙십전과 태평통남대문통간(太平通南大門通間)도로 관계자 일백칠호에대한 삼만칠천칠백칠원팔전과 영락정(永樂町)일이정목의 삼십이호에대한 일만사천이백사십오원오십사전의 제일기분부과통지를 발송하엿다 즉이특별수익세는 그전액을 오년에난호아서 다시매년일이기로 바치게되엇다 그런데 그중에는 흥은、공사를거진완성한데도 잇고 진행중인데도 잇스나 아직 공사를 시작 하지안흔데도 잇서서 가령 죽첨정 아현리간은 금년말에나 기공해서 명년의 삼월경에나 준공될터인데 리익을 밧기도전에 미리 수익세부터 부과하는것은 본말이전도된것이라고하야 관계주민들은 불평이 만타고한다

棧橋崩壞로 廿五名溺死

【蕪湖二日發電通】청리양운반선대야환(大倍丸)은 일일오후 무호(蕪湖)부두에서 철교를 싸코잇든중 잔교(棧橋)가 붕괴되야 중국인쿠리ー(苦力)삼십명은 해중에 추락하고 그중 이십오명은 죽고말앗다 다섯명은 구조되엇스나

富豪名義로手形振出 一萬千圓借用詐欺

東大門外黃富豪팔고仁川貸金業者에게 東門署一黨四名檢擧

지난일일아침부터 동대문서에서는이등(伊藤)사법주임지휘로 동서 형사대가 총출동하야 시내 창신동(昌信洞)을 중심으로검거망을 빼치고 대수사하든중동오후열시까지에 범인네명을 붓잡고 맹렬히 취조한결과 그들은 부호의 인장을 위조하야위조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만여원을사취한일이 나타낫다 사건은지난십일월 오일창신동 륙백오십일번지의오호 서적상외교원 박규석(朴奎石)(三三)은 창신동륙백삼십오번지의구호에 사는 황한규(黃漢圭)라는 부호의 인감을 위조하야 경성부청에가서 인감증명을 마타가지고 황씨가진출(振出)한것가티 꾸며가지고 약속수형(約束手形)삼천원 짜리를 위조하야 이를인천부외리(仁川府外里)일백칠십팔번지에서 대금업(貸金業)을하는 김림(金林)에게가지고 융통해주기를 청햇든바김씨는 본인인황씨를 만나겟다고함으로 전긔박규석은 십일월십일에 공범인 방진원(方鎭元)(三)을 황부호로 가장하야 창신동 화춘옥(花春屋)이라는 음식점에 량편사람을 모아노코 술을메이고 인사소개를한결과 김씨는 가짜 황부자의인품이 부당스럽고 덕망이잇서 보이는외양에 의심업시 현금삼천원을주엇든바 일당인조해룡(趙海龍)이 이를령수하야 일당네명이분배하야 소비한일이잇고 얼마후에 또다시 동일한방식으로 가짜황부자의 수형팔천원을만드러 동인김림에게 사취할일까지 나타낫다 이일을 당한김씨는 현금을 지출한후 괴한이가즈하여지므로 내용증명을 진짜의 황부호에 발송하야도를 독촉한 결과 황씨는전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수 업다고 다시 내용증명으로 대답한것을 밧고야 비로소 속은것을 알게되여 동대문서 외근순사 변더길(邊德吉)에게 알려진

平壤에火災 損害二萬圓

新倉里商街一棟一戶

【平壤支局電話】이일새벽두시사십삼분 평양부내 신창리(新倉里)일백이십이번지리근엽(李根燁)상점에서 불이나서 그이웃송죽(松竹)자전거포까지 두채를 전소하고 네시사십분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건물과 상품을 합하야 약이마원가량으로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다

坡州에路上强盜 九十圓强奪逃走

騷亂한歲末의鄕村

지난삼십일밤열시 경긔도파주군광탄면룡미리(坡州郡廣灘面龍尾里)삼백륙십사번지 리로마(李老馬)(?)가 동군 조리면장곡리(條里面獐谷里)에서 전긔룡미리로가는 오솔한산길에서 혼자거러 그의집으로 도라가는동 별안간 엽헤서 약삼십세가량되여보이는 장한이 나타나서 그의가슴을 주먹으로 쥐어질러 혼도식힌후 그의주머니에서 구십원이드러잇는 지갑을 빼서가지고 장곡리방면으로 다라난 사건이 발생하엿다 일일이사건의 보고를바든 봉일천(奉日川)주재소에서는 곳관할경찰서에 수배하는 한편 방금 딸방으로 범인을엄탐중이다

크機歸還飛行

今日未明마닐라出發

【마닐라二日發電通】아라메다、마닐라간의 태평양횡단우편비행의 제일착 최이나-크리빠ー 긔는 이일 오전 한시 오십분(일본시간 오전 세시 오십분)마닐라를 출발하야 도라가는 길에 올낫다 이십개의 우편행랑(郵便行囊)이 잡부와여 갈때보담 더욱 성황을 이루엇다 즉밤사감을 새벽으로 당거와ᄉ는데 날이 짧아진게로 『괌』도에서 충분한 여유를두고 도착할터는것이다 동긔는 칠일이나 팔일에 아라메다에 도착하야 일주일쯤쉬이고 십오일 제이차로 출발할예정이라한다

것이라는데 이 늠넘마한 사긔단내부에는 아즉도 다른 죄상이 상당히 만히 잇슬것가다하야 동서 사법계에서는 엄중히 추궁하는중이라는바 일당의 주소 성명은 다음과 갓다

▲昌信洞六五一의五 外交員 朴奎石(三一) ▲黃金町三丁目二〇四 趙鉉龍(四八) ▲觀井洞一二七 運轉手 方鎭元(三一) ▲昌信洞六〇〇의一九 柳重彬(四四)

唐珠洞時計舖 盜賊逮捕

일일오후 두시대것에 부내당주동(唐珠洞)일백오십륙번지 시계점 만보당(萬寶堂)주인 장문환(張文煥)이 그의딸 순이(順伊)(一)에게 가개를맛기고 점심을먹으러잡간 나갓든동 약이십세가량된 청년한명이 드러와서 시계를 사는척하고 진렬장안에서 너허둔 시계여섯개를 끄내여가지고 전긔순이에게는 아모말도말라고하며 비호가티 자최를감춘사건이 발생하야 소관종로경찰서에서는 사실을 비밀에부치고 범인을찻든바 이일오후두시경 그서하창렬(河昌烈)형사가 변말경계로관철동(貫鐵洞)부근을밀행하다가 거동이수상한 청년한명을데려다가 취조한결과 전긔시계점에 들어갓든범인이엇이 판명되엿는데 그는본적을 양주군화도면마우리(楊州郡和道面磨隅里)에두고 현재부내중림동(中林洞)오십번지사는 신봉운(申奉云)(二一)으로지난이십일 경성형무소를 나온전과자라한다

天氣豫報

昨日南朝鮮의 海上에잇든低氣壓은 東進하야 今朝는 北海道의 南海上에나오고 相當히優勢하게 되엿고北中國의大陸高氣壓은 크게發達하야 朝鮮으로퍼저왓슴으로 南朝鮮은 日氣는 回復하얏다 北西風이 强하고 氣溫은 昨朝보다 六度內外急降하얏다 京仁地方은 零度以下로 내렷다 南西部는 호린南海側 日本은맑고日本海側日本及東北地方以北은 風雨가 强하다

豫報 今夜는北西風이 불며날은개이나참고 來日도갓다

昨日最高 九度三分 最低 三度七分

今日正午 零下一度一

運動競技

★氷上의金、李、張三傑 世界制覇의壯途에

獨逸「카르밋쉬」로向하는途中 明三日午前七時京城着

世界舞臺의 制覇를 目標로 알프스山麓의 『카르밋쉬·바르텐킬르헨』의 氷盤우에서 열리는第四回世界冬季올림픽大會에 出場할스피ー드·스케ー팅代表 金正淵 李聖德 張祐植三君은 石原省三 中村禮吉 南洞邦文 諸選手와함께 監督靑木康氏引率아래 一日午後三時 東京驛發富士號로 壯途에올랏다 一行은 明三日午前七時四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 京城에들렷다가 四日午前三時十五分京城을떠나 同午前七時三十三分平壤에 下車하야 同夜七時五十七分發 「노조미」로 一路奉天에向할터이다 이리하야 奉天國際링크에서 二十餘日間 猛練習을行한後 二十八、九兩日間奉天에서열리는 送別競技會를 마치고 明春一月六日 西伯利亞經由 戰地獨逸로 向하게되엿다

崇實을이겨 崇商優勝

平壤籠球리그終幕

【平壤】崇實專門體育部主催 本社平壤支局後援의 第五回 全平壤籠球聯盟戰第十四日(最終日)은 三十日午後七時三分부터 주니옴對農軍戰으로 開始한바 結局四十對三十으로 주니옴軍快勝하다 다음 崇商B對西原은 莫上莫下로 大激戰을 演하엿스나 七分까지 得點 十八對十八으로 …… 崇商B軍 僨敗하고 다음 OB對西原戰은 老將 西原軍 처음엔 大活躍하여 優勢엿스나 實力의 差로 苦戰하니 結局 三十七對十八으로 OB軍 快勝하엿다

그러고 다음 滿都의 人氣를 總集中하엿든 崇商A對 崇實A의 決勝戰은 豫想그대로 稀有의 大激戰을 演出하여 兩校의 應援團과 數千觀衆으로 하여금 極度로 激奮케 만드러 拍手와 歡聲이 쉬지안코 喜러 場內를 振動케하다가 結局 無敵艦隊崇商軍이 快勝하여 連二年 覇權을獲得하여 그 實力을 더욱 더욱 뽐내엿다

그래서 今年度에도 京平對抗戰의 平壤代表는 崇商軍으로決定되엿는데 게임 끗난다음 同聯盟戰副會長 羅潤德氏로 부터 意味深長한 閉會辭를 드니어優勝팀인 崇商軍에게 優勝盃와副賞授與가 잇슨후 開會十四日만에 無事히 幕을다치엿는데 當日戰績과 戰率은 다음과갓다

주니옴 40	(20 20 … 20 10)	30 農軍		
崇實B 15	(13 2 … 7 4)	11 崇商B		
OB 37	(22 15 … 12 6)	18 西原		
崇商A 29	(15 14 … 8 9)	17 崇實A		

反前後(崇實A) (崇商A)前後反

反	前	後	崇實A		崇商A	前	後	反
1	4	2	吳壽哲	F	李禎國	8	6	2
2	2	0	張元明	F	朴榮大	2	2	0
2	1	2	張元國	C	趙得俊	2	3	0
1	2	2	吳重烈	G	金聖鎬	2	2	1
2	0	2	金光善	G	安昌鍵	0	2	0
8	9	8				14	15	3

戰率

順位		試	勝	敗	比率
1	崇商A	11	11	0	1.000
2	崇實A	11	10	1	0.909
3	O B	11	8	3	0.727
3	崇實B	11	8	3	0.727
5	崇商G	11	7	4	0.636
6	崇商B	11	6	5	0.600
7	西洋人	11	5	6	0.454
8	鷄友	11	5	6	0.363
9	西原	11	3	8	0.272
10	中職員	11	1	10	0.100
11	주니옴	11	1	10	0.100
12	農軍	11	0	11	0.000

普專·京商祝勝會

高專러비大會 朝鮮豫選에 覇權을 잡은 普專팀과 同中等部에 優勝한 京商軍의 優勝祝賀茶話會는 大每京城支局主催로 三日午後七時부터 本町 明治製菓上層홀에서 열터이라한다

明大러비ー優勝

【東京電話電通】關東러비ー리그 覇權을 決定할 七大學러비ー의 明大對 早大戰은 一日午後二時부터 神宮球場에서 明大先蹴으로 開始한바 結局明大一꼴差로 優勝하엿다

明大 18 (15 3 … 10 3) 13 早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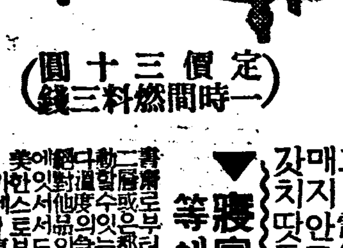
延專柔道部 明日부터遠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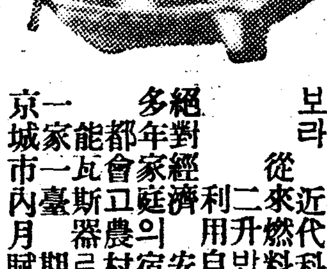
延專柔道部一行十五名은 姜樂遠氏引率下에 明三日午後一時半에 京城을떠나 仁川에 遠征하엿다가 翌日인 四日午前八時出發北行列車로 平壤에가서 그곳崇武會軍과 對抗戰을 五日午後七時半부터 平壤崇實專門講堂에서 行할터인데 歸途 開城에들어 六日午前十時에는 高麗靑年會柔道部와 七日午後七時에는 開城光武館과 一戰을交한後 歸京할터이라한다

▲監督=姜樂遠氏 ▲選手=金撰根 金東爵 李啓一 李春華 李定業 金重遠 申仁徹 吳泰三 李鍾武 李熙星 崔鳳鎭 李海俊 宋邦炯 周聖鎬 鄭鎭興

徽文籠球部自祝會

第九回籠球聯盟戰에 中東、養正과함께 首位를 차지한徽文高普에서는 戰勝을自祝하는 意味에서 同校現役籠球部對先輩의 籠球戰을 五日午後四時부터 同校「코ー트」에서 열터인바 一般의 觀覽을 歡迎한다하며 親睦戰이 畢한後에는 茶菓會가 잇슬터이라한다





斯界의驚異的突現! 專賣特許

瓦斯の素器 出現!

燃料界革命期到來! 近代科學의進展을 보라

從來燃料代半減 二升밥이十分이면充分 利用自在至極便利 安全堅固

絶對經濟 多年家庭의宿題는解決 都會고農村으고此器一臺면萬能 瓦斯器로使用됩니다 一家一臺 期必常備 京城市內 月賦提共

ツバメ號ストブ

定價三十圓 (一時間燃料三錢)

體裁가優美하고、油煙이업고、電氣、瓦斯와갓치줄을매지안코、房中을全部봄날갓치따뜻하게합니다

▼寢室、書齋、應接室 等에適應

二層或은都市로山間僻地까지라도自由롭게動할수잇는것이本品의特色中의特色이오 他品에比하야 經濟的이고 高熱이며 危險이업는 등 其他無數 美카에잇서도 瑞麗高雅의 最新意匠인 ……

事務室、應接室、大廣場에 最適 カーテン、ノーチリメン結晶燒付

『瓦斯の素』滿鮮一手發賣元

京城府古市町四十三番地

千代田洋行

電話本局(2)一八一一六番 · 振替京城二三八六八番

地方別特賣大販賣店募集

型錄請求次第進呈

皮膚病退治

데ー무水

効力本位

●말오줌●음무습진●종기●옴●태독●부스럼●진물은대●가려운대●버짐●를●헌어룩럭이●여드름●죽전풍●비듬●동창●치질●은깨●항문●고약●칠●진물은대●어러터진대●살터진대●

使用하야서쓰리지안코 거친대의皮膚病一切에 안코압푸지안 코눈에

이고끈적끈적하지안코、냄새안나고、用法簡便으로빨니낫는 テーム 水價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

全國各藥店에잇슴

東京市芝田村町 大阪天王寺石ケ辻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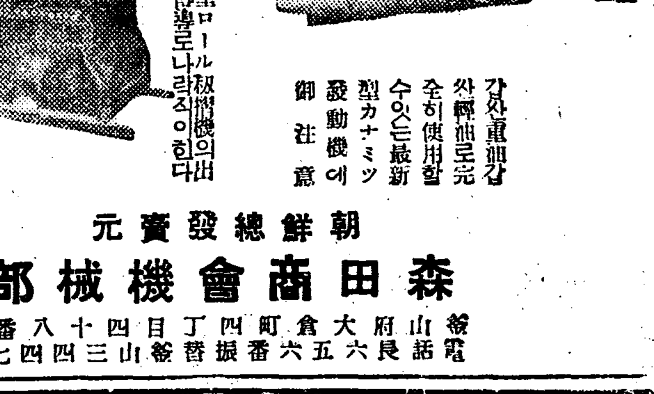
東京藥院

원료 물감

染料藥品

合資會社 福壽洋行直賣部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電車停留場前) 振替口座京城九三四番



特長 馬力으로能率이오百分之百이로 使用하지안음、齒車チェンベルト를 故障도無 其他ゼットクボタ發動機及部分品 エノモト重油燃燒機、在庫豊富 瑞光式神和式籾摺機特約販賣元 型錄進呈

籾摺機의王座 飽蘇型ロール籾摺機의出現無傳導로나라지이한다

專林省指定甲位入選

カナミツ 發動機 重油輕油

▲農家의王寶 ▲農工機械의巨星 ▲燃料節約이第一

각종重油갑싸고輕油로完全히使用할수잇는最新型カナミツ發動機에御注意

朝鮮總發賣元

森田商會機械部

京城府大倉町四丁目四十八番地 電話長六五六番 振替京城山三四四七番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用藥品 衛生材料品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點

山崎仁壽堂

電話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十八金代用金側新秋特別宣傳大會出

賣行絶對天下의人氣는歐米洋行으로集中

◇時計愛用人諸彥은必히本社所定의當社時計를御使用하시옵소서 本社에서는 一般同胞의 便宜를圖謀하야 代金引換으로도 發送해드리니 가까운곳에서도 아즉도 注文하시지안은분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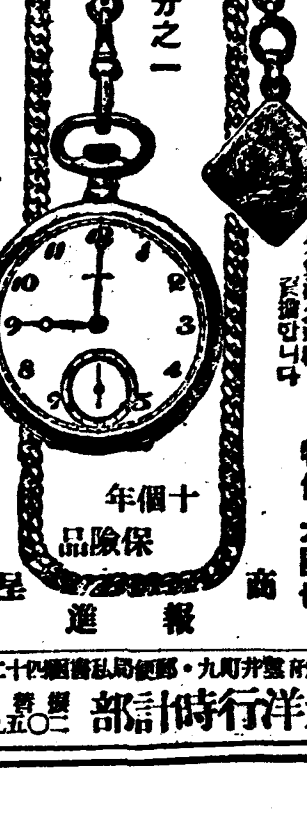
當當市價四分之一

十八金代用金側 精巧製十六形十五石入アンクル 市價二十五圓品 特價六圓七十錢 (クサリ メタル付 サック)

クロム側十六形十五石入アンクル 市價二十圓品 特價五圓也 (クサリ メタル付 サック)

九形 十八金代用金側 十石入アンクル 特價七圓也 クロム側十石入 特價六圓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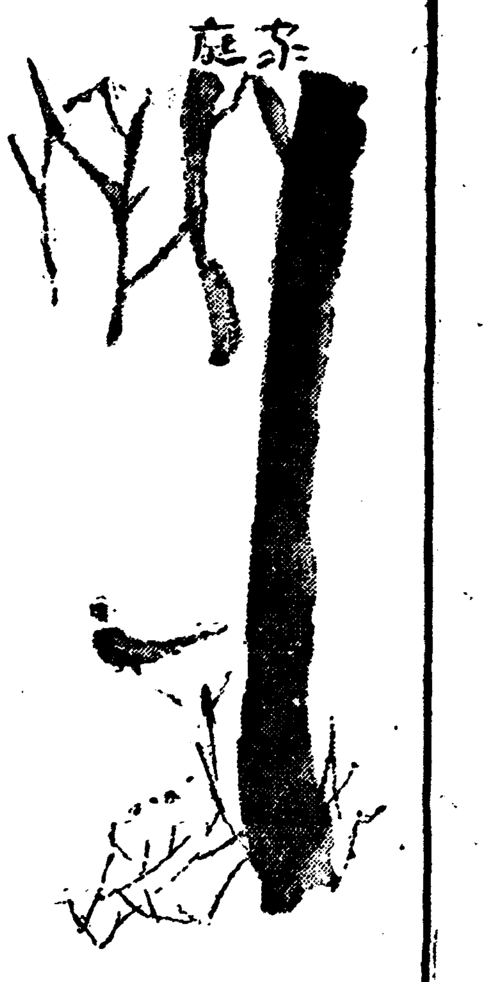
先金注文送料進呈 …… 報商 十個年保險品 進呈



新義州府彌生町九·郵便局私書函第十二番

歐米洋行時計部

振替京城二〇五九九番



시집사리논
귀양사리아니니 더러 친정에보냅시요
—살림만식히시는싀어머님께—
이것이며느님의휴가

안악네들은 시집을 와서 남편을 섬기고 아기나히를 하건만 그래도 여전히 자긔친정을 가지고 우리집,우리집하야 참말 자긔의 집은 마치 남의 집처럼 말합니다. 그 몰론 녯날 습관이 아즉도 남아 전하는 것이 오리다만은 세상에 그런말보담 더 부당하고 무리한 말은 업스오리다. 그러나 싀집살이를 하는 새색시들에게는 거지업시 그리운 것이 친정일수밧게 업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의의 눈치스밥을 먹자니 그야 물론 친어버이가 그립고 친동긔가 그리울 것임에 틀림이 업습니다. 싀집을 자긔집으로 말하게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집을 자긔집으로녀기게하는 그것이 문제올씨다 벌서 케케 묵으듯하면서도 아즉도 문제되는 문제올씨다

모든 가정제도를 풍습이로밧구기전 시집살이를 아조 업새버리기야 할 수 잇습니까?싀집살이도 나름나름이라 적어도 좀더 개량할 수는 잇지 안습니까? 위선 새색시들을 그친정에 근친 보내는 것을 한예로 든다면 심한 대에서는 십년에 한번도 잘 보내주지를 안습니다. 그것도 아조 멧천리 멧만리 거리가 먼곳에는 할수업는 일이지오만 그저

수삼리상거에

도 그러케안 보내주는 수가업지 안습니다. 흔히 시부모들은 젊은 며느리가 친정에 자조 다니면 맘이 나기 쉽다고 핑게하십니다. 그것도 그럴싸한 말슴이로되 갓금가다가 한번쯤도 안보낸다는 핑게에 지나지 안습니다. 적어도 일년에 한두번 형편에 딸아서 이삼년에 한두번 쯤은 근친을 보내주도록 하서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것을 거절하는것은 결국

절믄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심히 시키는 증거입니다.

×

누구라고 친어버이나 친동긔를 오래떠나서 보고 십지 안켓습니까? 더구나 항상 구덥에 싸혀 편안한 틈이 업시 지내는 젊으신네들이겟습니까?남의 사정을 불통해도 분수가잇지 그대도록 막을것이야 무엇입니까? 며느리커서 시어머니가 되얏거니와 자긔의 며느리 께 섭섭은 좀 생각지 못하십니까? 첫재로는 부모동긔를

그리워하는정의

도톰족하시러니와 둘재로는 몸을 좀쉬라는 휴가삼아도 슬몃이 허락하서야 합니다. 시집살이하는 젊으신네에게는 근친을 가는이외 일년 열스두달을 가야 려행갈 곳도 업고 구경갈 곳도 업는 처지라 사실로 애처롭지 안할 수 업습니다. 만일 자긔 따님을 그시집에서 근친보내지 안흔다면 첫길 막길뒤면서 오죽이나 그서집을 원망하고 책망하시겟습니까? 내며누리도 남의딸인즉

그것을미루어서

라도 한번 너그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업겟습니까?

×

며느스님을 그저 집속에 가두어 두고 틀복기만하면 자연 몸이 불건강해 저서 병도 나기 쉽거니와 딴 병은 또 몰라도 성질은 아조 버리게 됩니다. 그러케 며느스님을 맨드는 것은 자제를 위해서나 손자애기네를 위해서나 내지 댁외장래를 위해서나 행복스럽지 안한 노릇입니다. 그러라고 며느님을 여긔저긔려행을 보내고

휴양을시킬수는

업겟지요만은 친정의근친쯤은 어려울 것이업습니다. 한집안의장래를 위해서라도 근친을 더러 보내주시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밋고 권고합니다.

童話 청개구리나라 ②
李龜祚

『………』

『어머님이 임종(臨終) 때에 『얘야 나를 강ㅅ가에 무더다오』하시고 귀에 못이 배히리만큼 신신부탁하시게죠.말슴꼿마다 엇나가는 자식이지라 어머님이 거꾸루 말슴하신것을 이놈은 이번이나 말슴대로 해드리라라는 생각에 강까에다 장사를 지냇습니다 미욱하기가 곱이죠』

로인은 코울을 베억 씻고나서 비가 오시면 강물은

것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얘기—상사집처럼 잘 밥은 안하고 죽만 쑤기로한다는 얘기를 쪽 하고

『첨 오신손님을 쌀밥진지를 못해드리엿스니 머리를 들고 대길수가 업습니다』

『원! 큰상 받은것보다 기쁩니다』

말이 가고 오고 오고가고… 닭이 홰를 칩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봐야지.』 강물이 줄어두 우리어머님 산소는 그대루 잇슬까요?』

장마물이란 밋바닥을 따가지 안흐면 모래로 메이면 메엿지. 그냥 그대로 잇지안는것을 로인인 그가 몰을리가 업슬터—그러면 빼언히 알고 뭇는 이말에 무어라고 해야 올흘지? 지는척 하는수밧게 별생각이 안나옵니다.

그이튿날도 역시 죽을 몃술 어떠먹엇슴닛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뿐해지는것이 떠나고 십지가 안슴니다.

개고리나라는 마음이 옥가티 아름다운 나라!, 다른데로 가드래도 이런곳이 또잇스려니—하는 생각이 빨리 보따리를 꾸리게합니다.

◇

뒤더지처럼 강물을 돌고 나아가기를 얼마쯤하다 [illegible] 자줄밧타 깔리어 [illegible] 입에 슴치고 [illegible] 어슴어슴해옵니다.

보람이 업슬수가 잇나……생각을 하니 뛰고십습니다.

나라가 이만치 큰만큼 청개구리네보다 훌륭한 이들이 만흘터이니 그분들을 몃달이 걸리드래도 죄 차저보리라… 얼마나 조흐지 무겁던 다리가 거뜬해집니다.

성문을 썩 들어서니 깨끗한집이 늘어섯고 반들반들 다가노흔 운동장도 잇습니다.

『아프로— 갓』

『도라우편아프로— 으이』

개구리병정들이 체조를 하고 잇지를 안습니까? 어마어마한것이 모올데를 온것만 갓습니다 지내가는 개구리들은나를 거들떠 보아주지도 안습니다 한울에 별처럼 집들이 총총한데 어느집 대문을두다리면 요기나 끄게될지?여룸만 깃줄만 알어슨데 어느

그중에 듬썩 노픈집이 잇길래 저녁이나 빌까? 하고기웃기웃하는데

『끼놈아!』

다짜 고자로 팔을 비틀어뒤짐을 지웁니다 돌아다보니개구리병정—어이가 업서서제멋대로 내버려두니까 추흥대로 끌고 올라가더니 넓직한 마당한가운데 끌어엎드게 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놈아! 네 죄를 아리여라』

힐끔 처다보니 압발을 넘석 들고 두눈을 껌벅거리는 개구리왕이 제법 비빨가리 호령을 내리고 잇습니다.

『여기와서 기웃기웃거린 죄박게 업소이다』

『임금님 말슴을 거역하구— 당장 목베일놈』

『그럿사외다』

신하들이 맛장구를 칩니다.

인간의두극단

큰것도 굿이잇고 적은것도 한이잇슬것인데 사람을 이십여이나 맨드러낸 현재의 조화옹도 가답가답 작난이 심하다—뉴—욕『매디슨스퀘어까—든』에서 흥행중인 어떤곡마단에 다니는 사람중에는 극히 큰사람과 극히적은 사람이잇서 구경시군의 갈재를 밧고 잇스니 『잭크·알』이란 사나히는 사십륙관이나되는 초거인,그리고 그의상대역의『마이트』란사나히는 사진에보이는바와가트니 그비교를 말할수업다 게다가 둘이서 권투하니 그야말로 구경꺼리가 될밧게.

남과대해이야기할때 입에서나는악취
—엇더한주의가필요한가—
③ 鄭保羅

괴혈병(壞血症)환자는 이몸에괴양(壞瘍)을 발생케하며틈유한악취를 발산케합니다. 이외가튼악취는다만 악취만발산함이아니요 그외에 여러가지신체에해독이밋칠으로 그원인되는질환이존재하여 잇슴으로 입에서 나는악취를 고칠려거든 먼저 그원인적질환을 치료함이필요합니다. 또한 구취는 상대자에게 말할때 불쾌한감을 주는것외에 더욱 무서운현상을 신체에 가저오는일이 만습니다. 그원인되는 부패한물질은 타액과함께 위로 들어가 위와장을 해케합니다. 그외에 신체내에 흡수되며 여러가지 만성질환 즉례를들어말하면 루이마지쓰(僂麻質斯)신장염(腎臟炎)심장염(心臟炎)등의 원인이 되다고합니다.

◇치료법과위생

전혀 건강한 사람의입에서는 약간 향긔로운냄새가날뿐입니다 만일 악취가날때에는 신체어느부분 즉구강(口腔) 비강(鼻腔) 인후(咽喉) 식도(食道) 위장(胃腸)긔관지(氣管支) 폐(肺) 신장(腎臟)등에 이상(異常)잇는것이 틀림업는 증거이므로 치과의사(齒科醫師)와 내과의사(內科醫師)에게 상담하야 그 원인을알고 치료를 바듬것이 필요합니다.

구강위생으로 말슴하고 십흔것은 간혹 딱딱한음식을 충분히저작(咀嚼)할것이며 이럼으로 치아와닛슴뿐만 아니라 그부분에잇는 여러조직에까지 혈행을 조케합니다. 착(沈着)을 방지하며 니슴에염증과출혈을 방지합니다.

기게적으로는 매일 두번식조석(朝夕)으로 비교적 빳빳한치솔로 아래우도 잘닥글것이며식후에는 반드시 잘양추질할것이외다. 그리고 일년에 적어도한번식은 치과의사의 진찰을바들것이 필요하며 또일년에 한번식은 꼭치석소제를 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치조농루(齒槽膿漏)예방이요 충치예방이요 구강악취의 예방임으로 더욱 관심을가저야겟습니다. 속담에 예방에쓰는 일전(一錢)이 치료(治療)에 쓰는 일원(一圓)보담 더가치가잇다고 말하엿습니다. 우리도회지에 사는사람 특히 지식계급에잇는 사람들은 남보담더 만히사교적회합과 밀담할긔회가 만흠으로 이점 즉구강에서나는 악취에대하야 관심하시기를바랍니다.

—(끗)—

二日 (月曜)

◇午後六時 童話劇 白雪公主 二景七場 原作 엄헤루·칼그림 脚色 鄭寅燮

(配役)
女王(公主의繼母)……金鮮姬
白雪公主(임금님의딸)……韓銀淑
王子(이웃나라임금의아들)……鄭慶瑞
侍女……金鐘玉
산양꾼……金銀星
거울……田山草
마눌이(작은이에한사람)……鄭信永
작은이(一)……劉甲順
同(二)……朴寶淑
同(三)……康福均
同(四)……玉愛羅
同(五)……李英喜
同(六)……高公珠
두루미會 指揮 金相德 解說 金鍾鳴 效果 效果班

◇同六時一五分 經濟解說 李常齋

◇同七時三○分 運動界의回顧 (四) 氷上競技에對하야 高鳳梧

◇同八時 라디오·드라마 一場 柳致眞 作 祭祀 劇藝術研究會 演出 柳致眞 效果 效果班

◇同八時四五分 레코—드音樂

◇同九時 (東) 管絃樂 (第四回音樂콩크—르入賞作品)
一、組曲『滿洲의印象』…松浦和雄作曲 (가)滿洲人거리의아춤 (나)가마와行列 (다)城原과楊柳 (라)城內의祭日 指揮 山田耕作 新交響樂團
二、西風에날리는旗…服部正作曲 指揮 服部正

野談同好會 主催
朝鮮日報社學藝部 後援
◇十二月六日밤 七時半 東洋劇場에서

울리고 웃기는 才辯三重奏 **野談大會**

庾秋岡氏

玄哲氏

申鼎言氏

演題
얼지못할人物(野談) 申鼎言
壯士의恨(野談) 庾秋岡
感孝代命(演談) 玄哲
贊助出演의歌手 新民謠 盧碧花 流行歌 崔南鏞

曆 十二月三日 (火) 十一月鍵戊子(大)八日 癸丑·本宿·滿
●祭祀에宜함
●大雪八日(舊月十三日)
●冬至二十二日(舊月廿八日)

同德女高音樂會
來三日밤公會堂에서

시내 동덕녀자 고등보통학교(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 에서는 음악에 조예잇는 동교학생을 망라하야 오는삼일밤(火) 일곱시에 장곡천정공회당에서『獨唱과 合唱의밤』을 열기로 하엿다한다

三日 (火曜)

◇午後○時五分 (東大)合唱(第九回合唱祭人選優勝)(大阪)
一、……(가) 神殿 크로이차作曲 (나) 우뻔이…첵코슬로바키아—民謠 關西學院그리—클럽 指揮 佐久間太郎
(東京)二、……(가) 노래祭 이노름作曲 (나)저녁의노래…크로이차—作曲 (다)山懸聲 櫻田貞作曲 (라)맘는사람은웃고피는노란…矢田部勁吉作曲 玉川學園混聲合唱團 指揮 岡本敏明
三、……(가) 가을의자장가…휘—리스作曲 (나)아름다운푸른도나우 요한슈트라으스作曲 EC클럽 指揮 中井和 伴奏 深川嘉世
四、……(가) 神殿…크로이차—作曲 (나)小人의樂隊…세—야—作曲 (다)바다의노래…스레빈스作曲 東京리—데—타펠펠라인 指揮 秋山日出夫

◇同零時一五分 常識講座 (二) 歷史이야기 (一) 輔埰表

◇同六時 라디오世界一週(修學旅行) 풀—랜드 (一) 金道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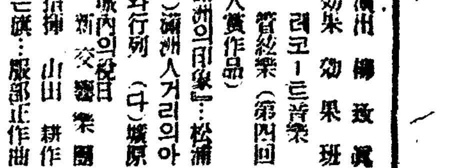
◇同六時一五分 經濟解說 盧集男

◇同七時三○分 講話 民謠와社會相 金台俊

◇同八時 望夫石歌外 一、望夫石歌 二、寡婦歌 三、노래가락 四、青春歌 五、멋打鈴 音 松岡 細笛 高哉德 短簫 崔壽成

◇同八時三○分 빠이올린獨奏(레코—드演奏) 一、빠이올린協奏曲 트短調 作品六十四—멘델스존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몰토아파쇼나—토 第二樂章 안단테 第三樂章 알레그로논 트롭포— 알레그로몰토빠—체 크라이슬러 倫敦필하모닉管絃團 指揮 로날드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沈淸歌中林塘水로가는데 金柳鶯 鼓手 韓成俊



短篇小說 惡夢 【二】
咸大勳 作 夕影 畫

『영자씨?』

원절은 한참동안이나 멍하니천정만 처다보고잇는 얼굴을 영자게로 돌리엇다

『네?』

『영자씬 웨 제진심을 몰라주세요? 제가 지금와서 멀하겟다구 영자씨게 이런괴로운말슴을 드리겟서요 참을래야참을수업는 고통이 가슴속에매치고 매친것을 어떠칼길이업기때문에 그리는게 안야요? 행복된 가정을 가젓다문 뭘햇다구 영자씨게 이런 하소를 다시금드리겟서요…』

『………』

『영자씨!』

『네?』

『웨 아—문말이업으세요』

『………』

『말슴좀좀하서요 영가씬 저를 조곰이라두 생각해 본적이업으서요?』

『………』

『지금와서 이런말슴을 드리는건 말하는 저자신두 쑥스럽지만 말슴을 바로한다문 전 경숙이 보담두 영자설 더사랑햇서요 그러치만 운명의신은 나를 영자씨게로 잇끌려주질안엇서요…… 지금생각하문 의리구 도덕이구 그런녀저분한 생각은할것두업시 영자씨게로 달려가야 올앗슬것을 통절히 늣겻건만…… 그때는 또그이떤 책임 관렴때문에 그만 영자씰 이저바리고 말게됏서요 아니 잇저바렷다는것보담두 먼한들에 반짝이는 별과도가티 안다가히 생각하문서 그만 경숙이와 결혼해 버린게야요! 물론 허물은 제게잇는게지만 지금생각하문 웨 나는 참되게 사랑하는 영자씨게 이런사정을 이야기 하지두안쿠경숙이와 결혼해버렷슬가하구후회를 거듭거듭하고 잇서요 그러치만 때는 늣지안헛서요 저는 경숙이게대한 그어떤의무감대문에 형식상으루 결혼은 햇서두 경숙이와 영원히가티 살수 업슬것을 각오하고 또한편으로 영자씨를 만나제진심을 하소한뒤에 어떠케든 결점을 지우려고 아즉 혼인신고두 하지안쿠 두엇서요 그러니깐 영자씨! 제죄를 사해주서요. 그리구 저와결혼을 해주서요 네?』

원절이의 떨니는 말소리엔 애타는 순정의불길이 끌어오르고 잇는듯하엿다 그러나 영자는 아—모말도업시 머리를 속으린채 속눈섭긴 깜안눈만 깜박이고 잇섯다

『영자씨 그래두 저를 잇지안으십니까? 그래두저를 잇으실수가 업습니까? 마음은 무형의것이니 그걸안잇으신다문 더 무얼로표시해 드리진못하겟습니다만은 그건 너무영자씨의 고집이야요! 너무저를 얏보시는거야요 사람이한번실수햇다구 그리두 저를천하의 못된놈으루 인증 하세요?』

『누가 선생님을 나뻐대요?』

『그럼 웨 아—무대답두 안하세요?』

『글세 말을하면 뭘해요! 이미다그러케되걸 이제어떠컬수가 엿서요!』

『그러기 최후의 한길이 남어잇다구 그러잔어요?』

『그러치만 그건 남의 가슴에 못을박는게안야요?』

『그건 어떠튼 영자씬 저를 지금두생각해주서요?』

『그야 물론 한번 마음을 허락햇섯드니만큼 쉽사리 잇저야지겟서요만두 전 그런 남의가슴에 칼을 찌르는 일은 하잔컷서요』

『그건 그건 제가다하죠 칼이든 못이든 무에든 제가 다박고 천하사람이 욕을 한데두 그걸 제가 다먹을테니깐요 그건염려말으시구 영자씨만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니야요, 그럴께아니야요…』

『영자씨 진심으루 저는 영자씨를 떠려저선 못살겟서요! 그걸어쩌문 알아주지 못하서요』

『………』

문소리가 바시시 들리드니 이쁘장한 하녀가 양식접씨를 몃개를 들고와서 대그럭대그럭두사람압흐로 나우워 노아주고는 간다 두사람은 잠간 동안 말을 끈엇다가 식탁압흐로 갓가히 닥어안지며 서로 상긔된 얼굴을 치어다봣다 그들의 고가는 시선에는 이상한불꼿이 반짝이엿다.

기침에잘듯고 먹기좋은약

무서운기침병의 류행기가왓슴니다 하로밧비「지밋신」으로 곳처주시사 감기·폐염 홍역·백일해를 미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해·홍역

기침병중에도 가장 고통이심한 백일해 홍역의 특효약으로 구미국에서 유명한「지미草劑」의 대표적제약으로 정확한효력이잇슬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써 약을실혀하는어린애라도 잘먹게됨으로 더욱유효하며 더구나 극약성분과마취성분이 조곰도 석겨잇지안음으로 절대안심하시고 사용할수잇는약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림상치료에도 늘칭찬을밧고잇는약으로써 백일해갓치 오래쓰는병도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사용하시면 경과를빨으게하고 고통이심한발작을다스리며 구토와쇠약을방지하고밤잠을잘자게만들어줍니다.

밧튼기침·천식

조선은기후와토질의관게로 특히 밧튼기침: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 담·기침이 만흐니「지밋신」은 조선사람의체질에 꼭맛는만큼 무슨약보다도 부작용의염려가 업시잘듯고 잠을잘주무시게만들어준다고 칭찬과감사로 환영을밧고잇습니다.

어느가정에도 한병식준비하시사 기침을하거든한숙갈… 잠재일적에 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위험한기침병을 예방하여주며 잠을잘자게하고 자는동안에 병증세의악화를방지하며 전쾌를빨으게합니다.

五〇瓦…四十錢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チミツシン
지 밋 신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發賣元 鍵田遊元三郎商店

TY-K-27

나의본 大톨스토이의 人物과作品 (七)

碧初

지금으로부터 約三十年前에 푸란스 어느新聞社에서 讀者들에게 當代世界的偉人 열사람을 投票시켯는데 그때首位에올랏든사람이 루시아의톨스토이엿다

世界的偉人이라고떠드든 當時 東京에가잇든朝鮮人留學生中에는 톨스토이의일흠을 아는사람도 몃사람이못되엇다 톨스토이의作品을 단한卷이라도 본사람은 드물기가 새벽하늘의별과가터서 나의아는範圍로는 三四人에 不過하얏다 나는 德富蘆花의 巡禮紀行으로 톨스토이란人物이 루시아시골『야스나야·포리아나』에 잇는줄을알고 十九世紀傑作者作者氏名은 이젓다』란 책에서『칼라일』『러스킨』과 가티톨스토이는가 新福音을唱道하는사람인줄알고 그 文學的作品이란것이 모다 耶蘇敎냄새가나려니 지레짐작하얏다 그의作品飜譯된것으로『이반못난이』『나의幼年時代』인가『나의少年時代』를두老人』『懺悔』『사랑잇는곳에神이잇다』『사람은 얼마나땅은土地가必要한가』 시시한

作品 을어더보고『人道主義』는 내가무슨말으로 사서보는데 보다가말다가하야 지지하게 끗을내곳나의宗敎는』남의책을빌어보는데책임자의勸으로보앗다 그책임자는 나의 同窓生으로 神學하야 春園의同窓生이되는사람이다 이사람은 耶蘇敎를 밋는사람이요 나는 耶蘇敎를 공연히실혀하든때라 이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말이 耶蘇敎에미처면 長谷川誠也의 反基督論이나 加藤直樹의 우리偶像의 基督敎가든것을 밤마이삼아서 攻擊하느라고 얼지도못하는『파이엘빠호』『스트라우스』까지떠메고 敎理를 反對도하고 基督을『안드레예프』希臘少年의 아들이라고 聖子를 헐어말하기도하얏다 이사람이 나를主의길로 휘어너흘 意思가잇섯든지 綱島梁川의『病間錄』『回光錄』가든것을 가지고와서 빌려주며 읽어보라고

至誠 으로 勸하야 勸에못이겨서 읽고 反對할거리를 찻느라고읽엇다『나의懺悔』도 이때읽은듯하나 記憶이 分明치못하다 톨스토이가 그때 나에게는 굴짓는 福音師로 눈에비치는데다가 謙虛히後生을 訓導하는態度가 비위에맛지아니하야 철업시 생각하기를 西洋사람은 耶蘇를信仰하는까닭에 저의멋대로 世界的偉人을 만들어떠들고 日本사람은 西洋을 崇拜하는까닭에 덩달어서 世界的偉人으로바더 紹介하거니하얏다 그러나 그의大作을 하나도 본것이업서서 속으로는 未安한맘이 업지못하얏다 그리하다가 內田魯庵의 飜譯으로 復活이 나오게되어서 첫卷은 빨리사보고 둘재卷은 기다려사서 보앗다

復活 을 본뒤에 톨스토이에對한 생각이 조금달러지는듯하나 카레니나와 戰爭과平和를 얼른보고시픈맘이 낫섯다 二重譯이거나 三重譯이거나 飜譯이나오기만 하면떨어지도록바라고잇는신세에 바라다못하야『안나·카레니나』의 英譯을 사가지고 英和辭典과 대가리씨름하느라고 끌머리를앓어보기도하고 內外出版協會사람더러 戰爭과平和가튼作品을 飜譯하라고 慫慂하야보기도 하얏다

學藝

Adieu 1935

蕭條한一年의 總決算的序詞 (三)

李軒求

評論界

創作에要求되는理論的方途

評壇이 活潑하지못한 그根本的原因의究明에 잇서서는 여러가지의 理由와 情勢와 事情이 잇슬것이다 이를要約하야 非常時風景이라거나 依存者的情勢라고하는 恒用語로써 代表한다하드래도 임이 生存해왓고 또生活하라는者에게 한個의 悲痛이거나 한個의 否定이거나 한個의

破滅 이 우리들의心胸에서歪曲되고 感歷되는속에서도 發現되어야할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文藝作品속에 具現化하여야한다, 그러나 오늘의情勢가 作品行動에 까지 그全面貌를 彷彿히할수업는 難關에 부다치잇다는것을 우리의日常的見聞이 事實로그를證明한다 그러면 局限된 우리 文學行動은 어떠한 方途로 나아가야 할것인가? 金晉燮氏의說과가티 一의文學愛好者에不過한우리들이 文學自體를 爲하야 또는 그의發展을爲하야 아니 오늘의時代 또는 다음올수잇는時代에對하야 우리가남길바 文學의 生産은 그무엇이어야하느냐 李源朝氏가 『오늘의文學과 文學의오늘』에서말한바 『이때』『여기』에의文學의生命은 어떠케될것인가? 이에對하야 今年度에잇서서 두個의論題를 들수잇다。 그하나는 金斗鎔氏의 東亞紙에 發表한 文學創作에잇서서의 社會主義的 레알리즘의 理論이요 다른하나는 咸大勳氏가말한『知識階級의不安과 朝鮮文學의將來性』이다

그러나 오늘에잇서서『社會主義的레알리즘』의創作 方法이란 어느程度까지

創作 의實際에잇서서 適用이되고 또는 그文學의 中心潮流(生命)가될까에對해서는 輕忽히 그斷案을내리울수도업고、또拱擊할수업는問題다、그만큼 이問題는新興露西亞의文藝政策이요 文藝潮流의全般이라고볼수잇다。 그러나 우리는 露西亞가 자랑할수잇는 世界的蘇聯文持者『앙드레、지ー드』의『文化의擁護』를 再三翻讀할必要가잇다。 그가『새로운人間을 獲得하는것이爲先緊要하다 (이苦惱는西歐에잇서서는 아직도前途遼遠한希望이지만) 우리는 아직 鬪爭의時代에잇다……우리는 戰鬪員이기보다開拓者다』라고 말하면서 그는露西亞의現在文藝가 『우리가期待하는 새로운人間이 一形相으로 表現된作品은 아직 보지못햇다』고말하엿스며 이어서 所謂永續하는文藝作品이 卑維히어느階級에나 어느時代의一時的要求에應하는것보다도 더만흔 더훌륭한內容을 가진것이라고 論斷하엿다 그러타면 우리의 이時代의이雰圍氣에서創作되는作品이 오직社會主義的레알리즘을 充分히實踐하며

具現 할수잇는 그開拓의途程으로보아야할것인가? 結局文藝는創作되어야하는것이오 强要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ー드는思想的同感을가지면서 새로운文藝를 創作못하고잇다 時代에敏感하고 聽衆으로운者라면 그가삿는바人生의體驗과 그가가진바文藝的素質에서 『스탕달』이말한바 自己의 死後三十年에 認定되는 그러한 力作을써야하는것이다。

金氏의 文藝創作에對한 積極的具體的으로 提唱하는 그것이 이理論을바더드릴까 또는 그들體用할 作家들 맛나지못하는限 理論은 理論대로 또새해를 거듭거듭마저갈것이다。이에反하야 咸氏는 이時代의呼吸과 苦惱과 온갓絕望的狀態를 如實히 그려내자는 提唱을하엿다。이것이 現實的으로는 더 우리身邊가까히 느낄수잇는 提言이라고할것이다 그러나 時代的苦惱、世紀的悲劇의表現이란 반드시 革命以前의 露西亞와同一하게 우리社會에도 移植될것인가는 좀더 愼重히考慮될問題다。왜그러냐하면 同一한 世紀的苦惱이란것이 그社會 그民族性 그民衆의

敎養 如何에따라 表現形式을 달리하는까닭이다。勿論 文學이 國際性을띠며 그先驅的思想表現이 다른社會에流播되야 世界的으로 巨大한波紋을 이르키는것은 우리가 浪漫主義以後의 近代文藝思潮全般에서 發見할수잇는事實이나 그러나 오직問題는 量的轉換과 質的變革의 社會的乃至國民的差異의 가장鮮明한 酌量만이 그社會의 가장훌륭한 文藝創造의길을 開拓해줄것이다。

現代批評의『딜렘마』

批評·鑑賞·製作의限界에對하야 (3)

金起林

批評과鑑賞

鑑賞이라는것은 한作品을 享受하야 共感하고 즐기는일이다。 鑑賞者는 批評者이기전에 享樂者다。 한作品에대하야 사람은 늘批評家의 立場에만 서는것은 아니다。다만鑑賞者의 限界안에만 머물수도잇다。大體로讀者는 鑑賞者이고 批評者의 立場에서게되는것은 特殊한경우다。또한事實로 作品은 애초부터批評의對像으로서 提供되는것이아니라 그보다먼저 鑑賞의對象으로서 저지는것이다。그런데鑑賞의 根據가되는것은 詩論도批評의基準도 아니오 主로 趣味다。

勿論 한사람의趣味와 그의批評的基準은 共通點을 가지기쉬운것으로서 가령 한流派는 그들이 즐기는作品의 種類의性質이 一致되기쉬운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한사람의趣味는 다만그의批評의基準에만 影響되는것이 아니라 그의生理와 全敎養、社交、職業 그러한것들의 總和가 決定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鑑賞의 問題에 關聯해서 우리는 두가지의困難을 가지고잇다。

첫재한詩人이나 批評家가 다른사람의作品을 鑑賞할때에 먼저그自身의詩論이나 批評의基準이라는 色眼鏡을쓰고 거기에걸리는 모ー든것은 享受하기전에 嫌惡하고또는拒絕해버리는 傾向이 생기기쉽다。 그래서 스스로 그鑑賞의 範圍를 주려버리는것을 왕왕이 본다。

나는 批評이라는活動의 必要를否認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 그반對다。다만 鑑賞만은위선 다른 干涉者의 시끄러운 干涉이업는狀態에서하며 또한 될수잇는대로 그範圍를 넓히는것이 自身의敎養을위하야 生의擴充을위하야 自己反省을위하야 매우必要하다는일을 强調하려는것이다

鑑賞에關聯해서 이러나는 또다른困難은이것이다。

即 鑑賞者가 자칫하면 鑑賞과批評을 混同해버려서 鑑賞의立場에서 批評을하는일이다。다시말하면 그의趣味에立脚해서 다른사람의作品을 判斷해버리는경우다。일죽이 印象主義라고 하는것은 事實로 批評이아니고 鑑賞이엇든것이다。十九世紀와함께 그것은 終滅햇슬터이나 오늘에도 간혹그러한 混同이 우리사이에 보이는것은 遺憾이다。

眞正한批評

나는 批評과 詩論、鑑賞의 關係를 생각해보면서 批評을둘러싸고잇는 混亂한雜務를 한거두어 버리려고애썻다。이제우리의 압헤 나타난 또는 나타나야할 批評의 正體란 어떤것이냐?

우리는 위선 批評과 批評學과 批評論을 各各區別해야할것같다

批評의本質과 및 그一般的可能性、機能과가튼것을 對象으로한것은 批評學이다 批評의方法 態度와 및 그現像을 論議하는것은 批評論이다

다시말하면 批評學이나 批評論은 모다批評에關해서 잇는것으로서 하나는 批評과批評論들에서 一般的法則을 發見하는것이고 하나는 批評에關한 具體的論議다

그러면 批評이란 어떤것이냐? 批評은 바로『作品에關하야』잇서야할것이다

『에즈라·파운드』가 그가編纂한『活動的詩華集』의 序文속에서 英國의批評이 作品에대하야 말하지안코 보다더批評自體에 注意를 끌려고하는일을 痛烈하게 攻擊한것은 正當하다 事實 우리의손으로된評論의 大部分은『作品에關하야』잇지안코 그自體에關해서 잇섯스며 따라서 作品에대하야 말해야할 批評의 第一義的인 任務를떠나서 그自體의 準備運動에 沒頭하엿다。 우리는 實質的批評을 가저보길이 지극히 드물엇다。 (계속)

劇硏第八回 公演印象記 (5)

金文輯

나는 柳氏에對해서 아무知識이업스나 적어도 이劇의作家로서의 氏를 詩人으로 認定햇다。 그러나 이劇演出者로서의 氏는 失禮이나마『素人』이라고 보앗다。그러타、이劇은 研究劇團의 그것은아니나 (萬若그러치안타라면 나는보올 못햇겟스나) 純然한素人劇으로서는 하로밤求景할만햇든것이다。

내가 이글劈頭에서 놀음으로서의 이劇을『씨도조코肥料도 납부잔어서』한것은『테ー마』도조코 脚色도수수하고해서』이라는 뜻이엇고、『다맛은 업스나 갑싸고 먹기조아서』한것은 專門的三昧境이라거나 研究的 高尙한 所得이라거나 하는것은 업다하드래도、눈물기지안코情(同情)답게 볼수가잇서서 라는뜻이엇고또 外國손님이 사가지고 갈지도몰으니 장에가서두어 보라고』勸하엿든것은 技巧와表現(効果를主眼하는우리네와 그同類의劇)『팬』들에게는 재미적으나 一般市政人에게는 好感을살것이니 어떠케 잘……云云해보라는 意味엿든것이다。

素撲한素人劇이나마 이劇의 舞臺理念——主律——劇感情은 도라온어머니의 演技로서 깨트러젓스니 내가 그놈의『요망스러운헌』이라하엿슴은 이主要人物의 基本的演技의失敗를 가르침이엇다 그는아마 이밤의三個幕을通해서 第一어려운役이니만치 그失敗도 誇張되어 나타난것이다。

『한낫에꿈꾸는사람들』에잇서서 音樂狂의 演技가『에센드릭』하게 不快햇슴에對하야 이술먹고도라온 不實한어머니의 藝術的不倫는『그로테스크』가 美的이엿다면 卽 그怪奇한 願望作品가 必然性의 所願이엇드면 이劇을容納하야 나는얼마나깃거웟슬가!

그러나 이때한어머니가 나를 欺瞞하기를 한번이섯다。從來의 술잔을집어서 휘!술을뿌린直後의 二三秒間 抗爭할때의 얼굴이 亡身的으로 不自然햇슴에對하야 그瞬間은 놀낼만치 自然스러웟다。

自然 自然하니 무엇을自然이라하는가? 여기에 自然이라함은 勿論劇的 또는藝術的이란말인대 그러면 어떤것을劇的 藝術的自然이라하는가?

우리는 晝夜로 人間生活을 目睹한다。그들이 밥먹고 울고 웃고하는것은 하나도不自然이아니다。그러타고해서 우리는 그들을藝術家로 認定할것이며 世間을藝術의 殿堂으로볼것인가? 아니다。藝術의 藝術인所以는 그것이 造作인곳에 잇다。시내에 맑으돌이 흐르고 어린애 눈에 귀여운 우숨이 피여나오는것은 아름다운自然이다。그러나 그돌 그눈은 아무리 아름답다할지라도 藝術은아니다。다만 藝術的對象이될것뿐이다。그돌、그눈을 再現해야만 即무슨 才操로던지『그것아닌그것』을 달리하나만 드러내야만 藝術이 생기는것이다。그러키때문에 藝術이란 徹頭徹尾 意識的이라야한다。意識함이업시 어찌造物할수가 잇스랴『쉑스피아』는 詩는 낫(産)는것이요 만드는것이아니다라고 햇슴은 藝術的感興乃至衝動을 말한것이지 藝術을 말한것은아니다。 周圍와自我가 交接해서어떤藝術的感動을 바덧스면 방은바 그內容을 무슨手段에依하야 이룰다시 表現해야 다시말하면 具體化해야 藝術이되는것이다。그런때문에藝術은 意識의總和인것이다。意識함이업시 우리는무엇하나를만들수잇슬가』

여기에 이르러 藝術의自然이라는것과 現象의 自然이라는것과는 그『센스』가換點으로 對立한다는事實을 發見할수 잇는것이다。即 舞臺우에서의 演技의 自然이라함은 純全히 造作(不自然)物인그劇이 要求하는바 一切의造作의要素、意識的作爲=誤解밧기쉬운 다른말로 表現하면 잘만드는『imitation』인것이다。알고보면이잘만드는『Imitation』이라는데 劇藝術의『스핑스』가잇다。

=枯·淡=

舊居遺話 (7)

湖岩

七代吏判의녯터

齋洞女高는 豐壤趙氏의 舊基로 鶴塘趙尙絅(경)以來 趙東冕에 이르기까지 七代를 두고내리吏曹判書가 나게된 京城에도 소문난 터전이다 特히鶴塘의아드님인

趙曮가 틀림은 吏判보다도 當時國際的으로 알려게된 名士라 일즉 日本에 信使로 가서 椽大의筆을 휘둘러 德川時代의 그네들 文人으로하여금 朝鮮詩壇에 鬼才가잇는것을 놀라게하엿다 趙曮다음에 趙鎭寬이 잇스니 벼슬이吏判에 이르럿스나 前날에 食儉의嫌疑로 鐵路次杖을 當한일이 잇섯다는데 이것이 그아드님豐恩府院君 趙萬永에게까지 惡影響을 미치게되어 萬永의 따님이 孝明

世子嬪 으로 冊立하려할때 貪吏之孫이라 하야 秋史의아버님 判書金魯敬이 反對하엿섯다 이러케重臣의 反對가잇섯슴에不拘하고 마침내 萬永의따님으로서 世子嬪을 삼으니 이어른이 곳翼宗妃요 後日에가서 神貞翼皇后가 되셧스며 憲宗을나호신 俗稱趙大妃마마 이시다 趙大妃의 親庭동생에 趙秉龜가 잇스니 이분도 역시 吏判을 지내섯고 平生에 眼精이부실하야 眼鏡을 쪗섯는바 宮中에 出入할대 眼鏡을 낀것이 病的인줄 모르는이에게는 갓딱하면 倨傲하다는

誤解를 밧기쉬운일이라 年淺하신 憲宗께서自己外叔이 或은 어리신님검께對해서 十分의尊敬을 表하지 안는가하야 항상 不滿하게 녀히시더니 憲宗께서 한번은 趙大妃압헤서 또眼鏡낀 外叔趙秉龜를 發見하시자 一大震怒를하시고 물러나갈을 命하섯다 憲宗의逆鱗에 觸한 趙秉龜는 너무나 惶恐하야 집에 나와서 곳飲藥自靖하엿섯다 그後에 憲宗이 昇遐하시고秉龜의 아드님에 趙成夏가 잇스니

趙大妃 의 헤가림을 입어 자주 宮中에를 드나들새 成夏는 매우 聰明하고 辭令에 善하엿다 그는 李鎬俊의 愛婿로 宮中의 機密을 李鎬俊에게 알리게되면 李鎬俊은 이것을 또 大院君에게 알리게됨으로 大院君은 가만히 안저서 闕內의 動靜을 샅샅이 꿰뚤고 잇섯다 大院君은 李鎬俊을 通하야 趙成夏를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九重宮闕 깁흔곳에 게신 趙大妃마마께 結託을 짓게되엇다 그리하야 一朝

哲宗께서 患候가 危篤하심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된 大院君은 自己第二子 命福君으로 大統을 入承케 하려는 運動을 일으켜 마침내 成功을 보게된것은 中間에서 시금부리하는 趙成夏의힘이 만흔것을 알어야 하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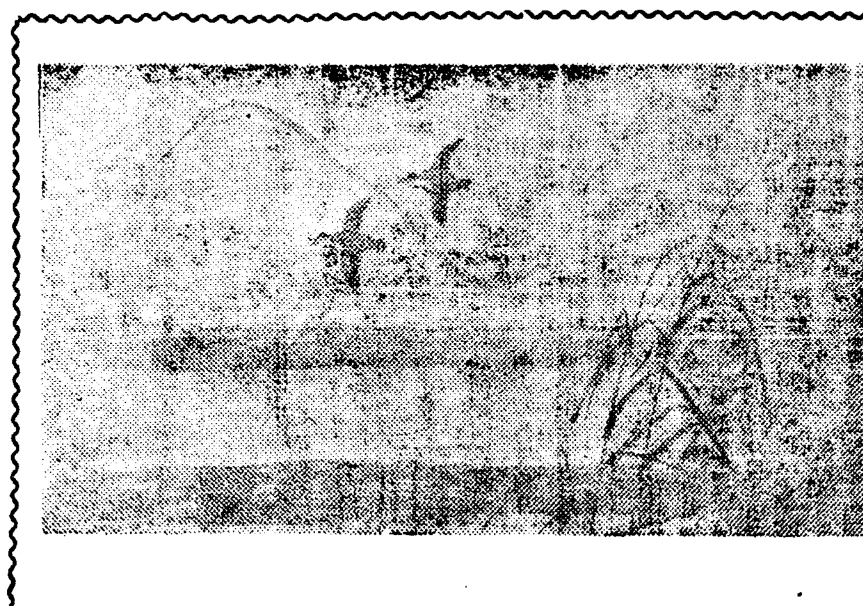
哲宗이 昇遐하시고 高宗이 登極하시매 大院君의 十年獨舞臺가 열리어 近世史上에 큰波瀾을 일으켯지만 이大院君의 出現을 直接間接으로 助成하야준이는 李鎬俊外에 趙大妃와 밋그 親庭조카인

趙成夏 임을 否定할수업다 趙成夏는 知于吏曹判書가튼것으론 셈이되지 못할것이다 趙成夏의 아드님에 趙東冕이 잇스니 역시吏曹判書라 그가 吏判이 된것은 다름 아니라 趙大妃마마께서 自己生前에 親庭孫子의 吏判하는것을 보시겟다고急히 서둘럿슴으로 그가 渺小한一靑年으로 吏判이되엿섯다 이로보면 趙尙絅을 筆頭로하야 그아드님 趙曮과 趙曮의아드님 趙鎭寬과 鎭寬의아드님 豐恩府院君趙萬永과 萬永의아드님 趙秉龜와 秉龜의아드님 趙成夏와 成夏의 아드님

趙東冕 이 한代로 빠지지 아니하고 判書中에도 가장榮譽로운 吏曹判書가 된것이다 그러나 이七代吏判의舊基는 近代史에 빗나는 高貴한 女性인 趙大妃의 誕育되신곳임을 아울러 記憶하여야 하겟다

峽地行 (3)

鷺山



漢字로는 岐灘이라 쓰고말로는늑갈이여울이라 부르는 江물이 잇다。참 맑고 푸르다。前에본 江물中에 저香山月林江도 괘푸르더라마는、그리고 저春州昭陽江도어지간히 푸르데마는 여기처럼 푸르지는 못하엿지아마。이江물엔 누가 碧玉가루를 풀엇나보다。

가리여울 맑은江
쪽빛이들 이럴가

이山골 사람들은
손도이물에 안씻나바

새들도 예서들면
파랑새로만 뵈는구먼。

海西紀行 (1)

朴花城

旅行의 씨슨이라는 봄 여름 가을 세철을 다 제처노코 하필 겨울을따라 名勝을 차진뜻은、분주한 나의 몸은날에서 빈틈을 끌나노코보니 때마침 초겨울이더라는 理由보다도 사람이 다 그들의 旅行日記에서除外해버린 十一月의 下旬을 내가喜로 주어 겨울의 名勝에對한 抱負와 胸襟을 엿보자는野心에서 나온것입니다。

꼿이라 綠陰이라 丹楓이라그 하나도 나그네의 눈을 끄으는것이엇고 겨울의 자랑인 힌눈조차도 아죽 그淸楚한몸을 보이지안는 初겨울의 旅行은 언뜻 생각할진대 그야말로 無趣無味의 허일일것 갓거니와 事實엿시 꼿다운楓葉을 방금 보내고서 압프로 酷寒을 마지할 恐怖에 떠는 山野林河는 勝景에 주린 길손의 눈에나마 훤듯하게 여우는 아무것이 나를 가지지못하엿습니다。

그러나 沙里院에서 海州까지 가는동안、鐵路沿岸의 모든風景은 내눈을 즐겁게는、해주지못하엿슬망정 나로하여곰 고요한 생각에 잠기게는 해주엇습니다 벼 베여낸 자국만 쓸쓸하게 보이는 空虛한돈!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그배를、손으로 베여간 사람들의 저논처럼 쓸쓸하고 空虛할 가슴을 헤아려보앗고 退色한 노란잎사귀가 아즉도 붓허잇는 雜木과 壽命이긴 붉은 丹楓나무가 섞겨서잇는 먼산의 초라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는 여지것、가을의뜻을 저버리지안코잇는 그들의 도타운 절개를 기리고 지낫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느진夕陽이라 초겨울의 黃昏이주는 哀愁때문엔지 故鄕을 떠난지 몃칠되지안는 간 鄕愁때문엔지 내마음은 공연이 애닯고 안탑갑고또한 쓸쓸햇습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서 마음저탈대로다라고 이웃이 안저누라니 좌우의 사람들이『長壽山』의 일홈을 불으며 설넵니다。눈을 떠보니 黃海의 金剛이라는 長壽山의 重疊한 雄峰이 黃昏의 하늘에 怪物처럼 소사잇습니다

천만년 살고나도
또만년이 남으려든
웬욕심 그리만허
네일홈이 長壽인다
사람이 제맘인양하야
그리불너 줍데다

나는 長壽山의 일홈을 입속에 뇌여보며 이러케 스사로 뭇고 대답해보앗습니다。

初行인듯이 보이는 한사람에게 황해도의 사투리를 써가며 長壽山의 絕景을 자랑하고 입너주기에 입에 침이 말나하는친절한 中年紳士의 살찐 얼굴을 바라보며 그얘기에 귀를 기우리든 나는 어둠속에 멀어지는 長壽山의 뒷모양에 호기심이 가득한 視線을 보내지안흘수 업섯습니다。

가볍게 몸을 뒤흔들며 다러나는 汽動車는 꼬리를 길게달고 거조장스럽게 달니는 汽車보다 速力이 더 강한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그와반대로로 느리고 무겁게 長壽山의 絕景에서 감돌고 잇는것입니다。

海州 거진 가까이가서 봄을 눈에다 환ー하게 켜가지고 그다지 高尙하지 못한 自己의 얼골을 자랑하고 서잇는 新酒幕驛의 燈籠에 나타난『新酒幕』세글짜를 읽어보며 나는 苦笑를 不禁하엿습니다。

七時半頃에 海州驛에 나리니 몬저 내압을 털막는것은 首陽山이엇습니다。나는 그에게 來日을 期約하며 旅舍에 들어海州의 맑은꿈을 탐내엿습니다。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新人을招請한다!!

應募期限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小說 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에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쓰십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一篇三十圓

◇戲曲 一幕以上三幕以內의것으로 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 쓰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一篇三十圓

◇詩 長短은 隨意로하시고 每人이 數篇式 應募해도 無妨합니다
賞金=首席一篇十圓 次席一篇五圓

◇時調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民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童話 童話이야기보다、길부고 기운넘이야기를 쓰십시요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賞金=入選若干篇에 對하야 各篇에十圓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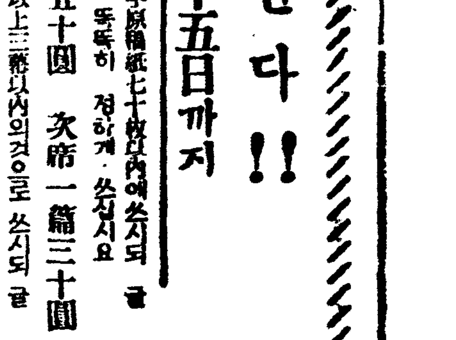
◇童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드림

注意 ●應募된作品은 入選落選을 勿論하고原稿를 一切返還치안습니다 ●보내실때는『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쓰서야됩니다

朝鮮日報社學藝部 白

黑風

韓龍雲 作 金熊超 畵 【189】



미인계(美人計) 18

폐병 제삼기에서 다시 급성으로 변하야 적당한 치료를 밧어가며 몸조섭을 잘 한대도 소생되기를 바라기가어려운 환명으로 처첩에게 칭혹하야서 의약의 치료를 밧을새이가 업는측 그리하고서 생명을 유지할수는 업는일이엇다 결혼한지불과 삼개월에 환명의 생명보험금 백만원은 완전히 봉숙의수중에 드러오게되엿다 봉숙은환명의 장사를 지낸뒤에 새로운 결심을 하얏다 사사생활의 모든 인연을 끈코 순전히 혁명을 위하야 일생을 마추기로 결심하얏다 그리하야 환명의 보험금 백만원과기타 모든것을 방매하야 가지고 광릉으로 가게되얏다、봉숙은 떠날 림시에 간단한 주과를 차려가지고 환명의 무덤에 가서 술을 부어노코 세번 절한뒤에 미처 뿌리도 잡지아니한 거친 풀위에 몃줄기의 눈물을 뿌려주엇다 그러고 아모리 평생에 인색한 환명이라도 자기 보험금으로 사업만 민중을 위하는 혁명자금에 보충하게 되는 그 공덕으로 환명의 혼이 천당으로가기를 가만히 빌엇다 그리하고 도라오는 봉숙은 다시 한번 환명의 무덤을 도라보고 감사하얏다

광릉에 나타난 봉숙은 먼저 왕한의 집을 차저다 신을 거꾸로 신고 나오면서 마저주는 창순은

『전보는 업시 이게 웬일이어

하고 놀나며 반가한다

『선통이어시 이러케 와야 더욱 반갑게 만나거든 전보를 하면 정거장에 나오고 엇저고 다 거지장스러운일이 아니어』

하는 봉숙은 손이 으서지게라 하고 창순이와 악수를 한다

『그런것이 다 사람의 일이지 친구가 오고 가고 하는대 환영하고 전송하고 하는것이 다 가미가아니어 봉숙이는 도이새에 특별한 인생관이 생긴게로군』

『특별한 인생관이 생긴것은아니지만 그런것이 다 허례가 아니오 밧분 시대에 누가 그런짓만 하고잇나、나의 얼골 좀 보아요 그새에 얼마나 늙엇는가?』

하는 봉숙은 얼골을 드려서 창순에게 뵈인다

『늙기는 웨 늙어 아주 조아젓는데 아 참 웬일로 저러케 조아젓스까 그전보다 훨신 발육이 되고 아주 피엇서 무슨 일이 잇는게군 그러치 안어서야 저럴수가 잇다구』

봉숙을 이윽히 바라보든 창순은 봉숙의 생리적으로 변동이 된것을 발견하면서 이러케 말하얏다

『일은 무슨일?』

『연애를 하얏는지 무슨 곡절이 잇는모양이야』

『연애? 연애만 하여 별별일이 다 만지 그래 창순이만 연애하고 나는 못하나얼골이 그전보다 달버진것이 압고보면 늙는것이여요』

『그럴까 봉숙이도 언변이 패느럿군』

하면서 봉숙의 가방을 바터드는 창순은

『이게 웬게 이러케 무거울까 이가방에 무엇이 드럿슬까?』

『돈이 백만원이나 드럿는데 무겁지 안할까』

『백만원? 봉숙이도 거짓말하나』

『거짓말은 웨 나는 거짓말안는사람이라나』

창순은 봉숙을 마저드려서 말말 하는 게제에 왕한이가 땀을 흘니며 드러왓다 왕한은 혁명자금을 변통하러 다니다가 실패하고 도라오는 길이엇다

세사람은 저녁밥을 마친뒤에 전등밋헤 솟발처럼 안저서 말을한다 봉숙은 자기의 환명에게 대한 경과와 보험금 백만원을 가지고온 말과 이뒤로는 혁명운동에 전력하겟다는것을일일히 말하얏다

新刊紹介

◆獨逸通信 第四號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發行 振替京城八八九五番 定價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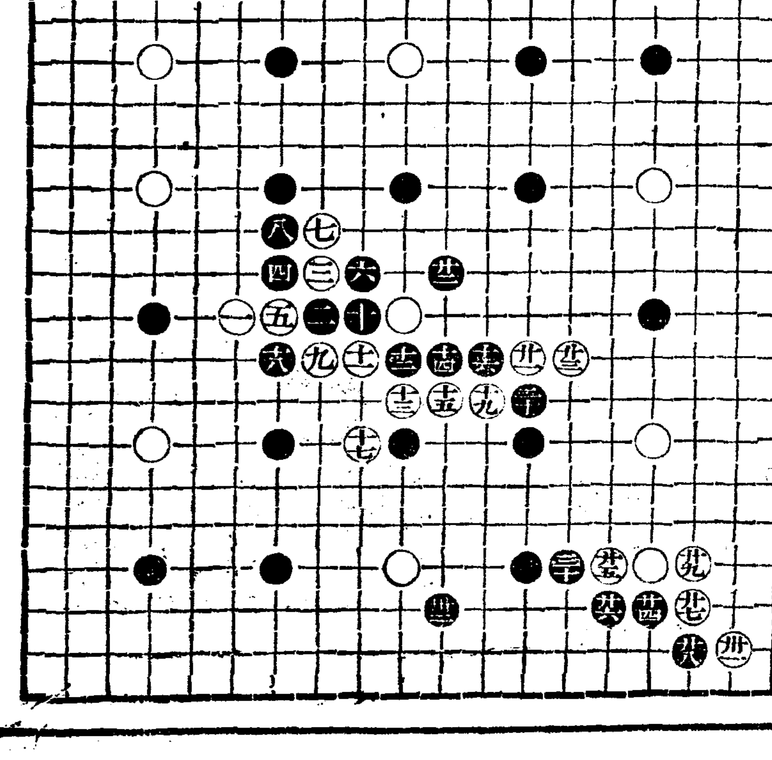
◆카톨닉靑年 十二月號 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 카톨닉靑年社發行 振替京城二一三四五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

圍碁對局譜 —2—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六點置) 李英鎬

○十七 子의十三
●十八 寅의十一
○十九 辛의十二
●二十 庚의十二
○二一 庚의十一
●二二 壬의九
○二三 己의十一
●二四 丁의十七
○二五 戊의十六
●二六 戊의十七
○二七 丙의十七
●二八 丙의十八
○二九 丙의十六
●三〇 己의十六
○三一 乙의十八
●三二 壬의十七



◆李極文氏評 白이 子의十三으로 列着할때 黑이 寅의 十一로 斷치말고 黑이 壬의 十三으로 白을 防禦하지못하다 白이 庚의 十一로 黑을 斷하매 黑이 壬의 九로 列着한은 相當한 對應이다 黑이 庚의 十六將棋式으로 丁의 十八로 劣着한은 劣手의 意圖로 推測이 近似하나 癸의 十四 子의 十五로 白을 攻擊할지못할것이다

問題의敎員張某 居留禁止로落着?

日中國交上센세이슌을이르킨 新義州華僑事件後聞

【新義州】신의주서교동거에서검거하기 시작하얏다는 화교소학교(華僑小學校)의 반만항일(反滿抗日)교육사진의 문제를 중대히생각하여 적지안은 주목거리가되엿스나 동사건에 대하야 엄중조사를한바에 의하면 동교에서 교편을잡고잇는 장소초(張紹超)(三二)가 교수중에 반만항일잡지 신명우(新明友)를 과외독본으로 사용한데 불과하다 하는바 이에대하야평북도고등과에서는 사건이일중국제 관계에미묘한관계를 갓게되느니만큼 신중한태도를 취하여 대책을 강구중이엿는데 반만항일교육를 중국령사관에서 알고 묵인하엿다하면 정식으로 외교적항의를 취하려고 하엿스나 중국령사관측에서 전연 부인함으로 결국전긔교원에 대하야 재류금지(在留禁止)처분을 하기로되여 문제는 일단락을 지은듯하다고한다

新義州中領側 談

화교소학교 사건에대하야 신의주 중국령사관측에서는 다음과 갓치 말한다.

동교는 로동자의 자제를 교육하는 학교임으로 사상적문제를 이르키리라고는 생각도하지 안엇습니다 전긔사진에대하여는 일본경찰당국의 착각이아닐가생각합니다 부내에중국인 자제를 교육하는 학교는 세곳이잇으나전부 만인(滿人)교원을 채용하엿는데 화교학교만은 중국인 교원을 채용한것이 사건의발단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거류민보호의 견지로보아 하로라도 빨니 원만해결을 바라는바입니다

面長의斡旋으로 貧民負債整理

【高原】함남고원군 수동면장량리(水洞面壯良里)에서는 동면면장 강찬우(姜燦祐)씨의 처단으로 빈민의 부채액을 조사하여 지난시월일에 제상차 갱생부락의 빈민에게 부채를 정리하엿다는바 동면총호수 이백십칠호에 인구가 일천삼백삼십삼명인데 갱생부락호수는 이십오호에 인구가 일백오십칠명으로 그중에 부채자가 십륙명으로서 부채원금총액이 구백사십원팔십이전이고 리자총액이 삼백팔십이원팔십전으로 원리합계금이 일천삼백이십사원이십일전에서 오백칠십사원이십전을 삭감하고 결국 정리액수는 칠백오십원이십일전이라는데 이것이 부채자가 자긔들의 실수입으로 부채를정리한다면 모르거니와 금융조합저리대부금으로서 부채를 정리한것으로 고리(高利)보다 저리(低利)이것이 안심은되나 결국 부채는 일반이라고한다

新陽、西城南里 뻐스線路延長

【平壤】평양전긔과에서는 평양발전과 함자를맛초아 교통긔관의 충실을 도모키로되여 금번에는 위선전차 소형보기차여들대와 뻐스네대를 구입하여 운전중이어서 부민의 편의가만흐니와 명년도에도 이십만원철차다섯대와 「뻐스」여섯대를 구입할계획이다 그런데 이번의 계획을계긔로 「뻐스」선로를 연장키로되여 신양리(新陽里) 서성리(西城里)에 거주하는 부민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되엿다

米穀出廻激減으로 米穀市場極閑散

正租檢査實施의影響 市民食糧買得이매우困難

【長湍】경긔도장단군내 각미곡시장은 정조검사제 실시이후로 미곡출회가 현저히 감소되여 례년에비교하야보면 약사오할가량이나 격감되엿다는데 이로인하야 정미계는 물론이고 각미곡시장이 극도로한산하야 나날이 식량을 사먹는시민들은 여간하야서는 쌀를살수가업서서 고랑포(高浪浦)등에서는 장단의전의로 주문까지하는사람이 만타는바 원인은 정조검사제 실시이후부터 일반생산자들은 미곡을마음대로 운반할수업는 관계상사세부득이 정조 공동판매소로갓다 팔게됨으로 각미곡시장은 한산하기 짝이업다고한다

長湍九化普校 學年延長運動

【長湍】경긔도장단군강상면구화리(江上面九化里)에잇는 구화공보교(九化公普校)는 종래사년제로 동교를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취학하라면 멀리사오십리나격한 진남(津南)장단(長湍)고랑포(高浪浦)로 전학하지안흐면 안될형편에잇서서 일반학부형들은 자못우려중에잇든바 당지면장 박인선(朴麟善)씨는 이에늣긴바잇서서 속히륙년제로 학년을연장하고저 금주부터 면내유지들을 망라하야 긔성회를 조직한후조성금을 모집하는중이라는데 면내주민들은 각성한바잇서서 쟁선하야 조성금을긔부한결과 벌서 이천원대를 돌파하엿다는바 동교는 대남(大南)소남(小南)대강(大江)장도(長道)광보교중앙에 처하야 륙년제로연장함에 가장적당한장소로 명춘에는 반다시 연장하게되리라고 일반은 긔대하고잇다한다

咸南道의金組員 全農家의廿七%

都市에는斷然他에制約되여 全戶數의九%에不過

【咸興】함남도 리재과에서 집계한바에 의하면 작년말현재도 금융조합(金組)에 가입하고잇는 조합원수는 륙만구천륙백오십칠명으로 총호수 이십륙만오백삼십삼호에 대하여 약이십칠「퍼-센트」가 조합에 가입되고잇는데 도시농촌별로보면 촌락은 이십사만오천팔백구십륙호에 대하여 조합가입호수는 륙만칠천오백오호로서 이십칠「퍼-센트」나 점하고 잇스며 도시는 이만륙백사십삼호 중약구「퍼-센트」인 일천팔백오십팔호에 불과하다는바 이것은 도시에는 금조(金組)외에 은행 동척(東拓)과가튼 금융긔관이잇스나 촌락에는 오직금융조합밧게 업다는것이원인이되다고하며 금조원이 별부변경중하는데 늘나지안을수가업다한다

農肥는小作人負擔 賭租는一二等正租

牙山郡內惡德地主等의貪慾 郡廳調停으로多少緩和

【牙山】지나친 지주의 말성으로 일반 소작인들은 전전긍긍 괴로운중에 싸여잇든 현상인바 충남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牙山郡鹽峙面白岩里)에 토지를 가지고잇는 경성 송모(宋某)라는 지주를 위시하야 아산군내의 악덕지주들은 소작인에게 농비(農肥)를 독담하라 주장하며 도조에는 반다시 곡물검사소의 검사를 마친 일이등 마즌 정조가 아니면 밧지안는다하야 혹 소작인중에는 금년 한발과 풍재로 흉작한사람이면 도조는 한필 일이등마즌 정조를 가외로 사다주어야 될모양으로 세농민들은 이공황에 싸여잇든바 아산군소작위원회에서 철저히 지주에게 경계한결과 다소완화의 [illegible]를 리게되엿다한다

天候의不調로 漁業者들悲鳴

【興南】흥남일대는 지난이십일부터 나리기시작한비가 아직까지 개이지아니하엿다 이로말미아마 서호진 일대는 큰수심속에 잠겻스니 날세가 흐리고 비가나리면 명태어건조가 되지 아니하여 품질이 불량해질뿐아니라 가격의폭락을 념려하여죽 접저들의 생명선에 미치는바란계가 크므로인함인바 압호로언제나 개일는지 매일가티 하늘만 치여다보고 잇는 형편이다

第二回咸興藥令市 ―지난一日부터開市―

【咸興】함흥약종상조합주최 함남도위생과후원의 제이회 함흥약령시(第二回藥令市)는 드듸여 일일부터 황금정일정목 한약상가에서 개시하기로되여 동일오전십일시부터 동명극장(東明劇場)에서 관계상인급도위생과장등 백여명의 출석으로 성대한 개시식이잇섯는데 금번에는 전년의 총매상고 십오만원의 배인 삼십만원의 매상고를예상하며 각지에서 약종상이수백명이 모여들어 시내는 미증유의 은성을 뵈이고잇다

溫泉入浴料減下

【牙山】수백년의 력사를 말하는 온양온천(溫陽溫泉)은 경남철도회사에서 그 령천(靈泉)을 인수직영한이래 그명칭을 신정관(神井館)이라하야 입욕료를자그마치 이십오전식을 밧든것을 금번 동온천리에 신온천이 출현하자 전긔 신정관에서는 탕료(湯料)를 감하하는일면 고객에게 종전보다 친절은 물론부속긔관도 종전이상으로 백퍼센트의 써-비스로 고객의편의를 돕는다는데 감하료금은다음과갓다고 한다

	本館共同湯	貸湯
從前	二十五錢	[illegible]
現在	二十錢	五錢

甕津近海에暴風 漁船四隻이遭難

漁場被害도一千三百餘圓으로 關係當局搜查에活動

【甕津】지난 이십오일 오후칠시경에 황해도옹진군 봉양면(黃海道甕津郡鳳陽面)동남면(東南面)룡천면(龍泉面)등해안에 급하야 폭풍이 습래하얏슴으로 출어중에 잇든 어선사척은 행방불명이되고 어장등의 피해는일천삼백오십여원에 달한다는데 폭풍은 이십륙일까지 계속되얏다는바 조난어선은 군경당청과 각어업조합에서 방금 극력수사중이라고한다

學級縮少說에反對 學父兄會를開催

七日西湖津公普에서

【興南】함남서호진 공립보통학교는 현재 구학급륙학년을 수용하고잇스나 도군의내시에 의하면 소화십일년도에는 팔학급으로 오히려 학급하나를 축소키로 되엿다한다 현재구학급으로도 오히려 그부족을 늣기고잇는 해교학부형회에서는 이에단연반대운동을 이르켜 그여론에 호소할작정으로 오는칠일에 해회역원회와 림시총회를 소집하여 현재구학급을 십이학급으로 증설하겟다하며 이에따르는 증축문제도 토의하리라한다

平壤食刀強盜 安州에서就縛

【平壤】지난달이십구일저녁에장거리에서 도라오는 리병규(李炳奎)를 식도로 습격하고 현금이십구원과 포목아흔자를 강탈도주햇든 범인은 삼십일안주군립석면 립석리(安州郡立石面立石里) 차춘빈(車春彬)(二□)으로 판명되여 안주서원에게 체포되여 평원서에 호송취조중이라한다

東拓土地買收後 作料를一切引上

二百作人當局에歎願

【保寧】어대를물론하고 소작조정령이 실시되여 악지주와악사음들을 철저히 응징하는이때에 충남보녕지방에는 이백여명의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인상하고 이모작(二毛作)이라고 보리논도조를 바다가며 금비대(金肥代)를 무리하게 착취하야 먹은 악덕지주가 잇다한다 이왕부터 동척(東拓)토지가 상당히 만아서 그의작인이 보녕군내에만 이백팔십여명에 달하는바 금번에 이르러서 개성(開城)에 거주하는 리상현(李相鉉)이가 그토지를 전부매수하얏는데 추수긔에 이르러서 도조를 인상하야가며 이모작에는 매두락에 벼삼두식을 요구하고 금비를 춘경긔에 동척에서 이자까지 미리계산하야 추수후에 반상하라고 각작인들에게 분배하야 준것이 잇섯는데 거긔에도 현를대엿다고 불평이 만타는바 실례를 들면 동군 웅천면대천리(熊川面大川里) 곽수동(郭洙東)의 소작답 십오두락에 소작료가 이천사십근이엇든것을 이천륙백십륙근을 요구하고 이모작이라고 매두락에 삼두식을요구하며 금비대로원리금 합하야 동척의의로된한가마니에 사원사십전식인것을 오십오전식이나 가산하야 사원구십오전식을 청구함으로 그무리한 요구에 분개한전긔관계작인들은 군경당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방금 준비중에잇다한다

種痘令違反으로 七十一名告發

【平壤】평양부관내에서 금추의 요종두인(要種痘人)이 조선인륙천륙백구십구인 일본내지인 칠백이십륙인 총계 칠천사백이십오인이든바 그중에서 칠십일명은 리유업시 종두를 거절햇기 때문에 한거번에 종두령위반으로 고발되엿다

平壤―西平壤間 列車妨害事件頻發

空氣銃發射、投石等等

【平壤】한동안 그림자를 멀리하엿든 평양―서평양간의 진조렬차 투석 혹은 공긔총 발사마가 이즈음다시 나타나서 일전에는 공긔총을 발사한일이잇섯드니 이번에는 또다시 돌을던저서 철도당국을 괴롭게하고잇는바 삼십일오후세시칠분 평양역착렬차가 보통문(普通門)부근을 달리는데 돌연 이등차 외류리창을깨치고주먹만치 큰돌이 뛰여들어 차내에 [illegible] 동시 유리의 깨진조각이 뛰여 마침 승차중의 원철도대신(元鐵道大臣)井上匡四郞자작의 자리까지 왓는데 다행히 별이상은 업섯스나 평양 대동량서에서는 련락을취하야 방해범이 [illegible] 수사중이며 동구간을 경계케 되엿다한다

漁獲에큰凶年 空漁船만이集中

盈德東海岸一帶閑散

【盈德】경북영덕군각해안(盈德各海岸)에서는 어획(漁獲)이 부진하야 일반당업자는 물론이요 각계에 밋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전년에비하면 이때는 고등어(鯖)풍획시기인바 근자에는 아주 고기가안잡히는 상태이며 더욱이 요사이는 해상기후가부조한관계로 본군강구항(江口港)에는 빈어선만 집중하야 한산막심이라고한다

品質本位 花王石鹸(화왕비누)

全東洋的石鹸!

四十八年間! 美와 健康에 奉仕하야참으로 東洋人의皮膚를理解한 純良無比의비누! 이것이 花王비누입니다! 比할데업는 살결의美를자랑하는東洋婦人들은그潤나고 밋그러운皮膚의젊음을保存하기爲하야 꼭花王비누를使用하시지안흐면 안됩니다

花王비누의 優秀한作用은 엇더한 부드러운살결도 안상하게하고 때를完全히 시처바려서 淸潔하게하고 皮膚를끌으게하야도 生하고도 潤이나게합니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商標 千 고쵸가루 都賣

金千壽商店製粉部

肺病必治

꼭 낫는다!!

無料(內務省(衛生局)編纂의結核에關한 文獻과나의全治되든自宅療法을가르처드리고 또良藥을無代進呈함

여러가지藥을먹어도낫지못한人士와 조흔藥과조흔養生을알려는사람에게

엇더한重症患者라도失望勿爲

身熱이나리지안는분 기침이잣지안는분 밤에식은땀나는분 喘息되는분 咯血되는분 억개가무거운분 不眠症잇는분 每日疲勞하는분 胃腸이弱한분 頭痛나는분 倦怠症나는분 胸腰痛잇는분 關節이잇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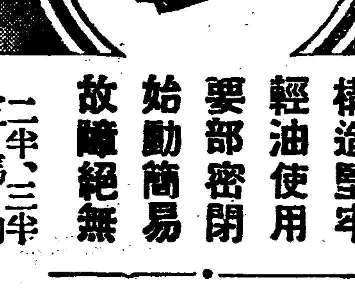
第三期患者도念慮마십시요 내가나흔것이무엇보다도證據입니다 數年前에무서운肺病에걸인나는世上에 흔한賣藥과療法에莫大한金錢을無益하게쓰며有名한先生에게診察을보앗스나 [illegible] 나는安心하고잇슬수업음으로全生命을밧처가며安全快法을硏究하엿읍니다 硏究가허되지안허一時는明日의生命이危殆하든나는드듸어二個月後에는 以前보다도健康한身體가될수잇섯읍니다 나에게는가장有効한 肺病特効藥其他病잇슴當時의 實驗談藥의選擇法 [illegible] 食料品의 選擇法一切의 肺病治療秘訣을一一히 [illegible] 無料로누구나에게든지가르처드림니다 또特殊한患者에게는 特効良藥을無代로드림니다 이글을보시게된것이무엇보다 多幸입니다 하로의躊躇가 百年의後悔가되기前에 이新聞名(朝鮮日報)를記入하야 一時라도速히肺病全快法無料發付를請求하십시요 이것도數人하기爲하야하고잇는 것이오니 아모조록安心하시고問議하야주십시요

本人住所 東京市小石川區東靑柳町二三

松島敎正

農林省御推選

カドタ KH型發動機



構造堅牢 輕油使用 要部密閉 始動簡易 故障絶無

二半、三半 五馬力 七馬力 十馬力

在庫豐富 型錄進呈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泰明商會京城出張所

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一八番地

電話本局長三三〇一番 振替口座京城五五〇三番

特約店募集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此際普通科 新入生에게는 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兩科를 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 講義錄一冊을 無代賞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高等科 三十冊 一冊六十錢 一年二個月 卒業

普通科 十二冊 一冊五十錢 一個年 卒業(速修隨意)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八九五番

本會의機關紙인月刊獨學通信을每月無代進呈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中等講義錄이며 朝鮮語, 漢文學科가 잇는것과 他講義錄에比하야會費도 거의半額임을注意하라

十二月三日부터三日間大公開 二大巨篇特選名畫上映!!

每日三回興行 正午十二時 後三時半 同七時半

大衆料金 椅子席 二十五錢 階上 十五錢 階下 十錢均一

新興키네마社 並木鏡太郎監督 秋季超飛躍作品 髷時代劇 劍鬼三人旅 嵐寬壽郞二役主演 特出演技!

血淚篇 沈默

第一劇場

十二月一日부터六日間 大衆映畫奉仕週間(但晝間만)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1)와-너社 全發聲映畫日本版

(2)와-너社特作全發聲 뿌라운野球大捷記 8 (日本版)

(3)레뷰-數篇

夜間一日……五日까지 東京少女歌劇公演

野談同人會主催 朝鮮日報社後援 六日當夜만 野談大會

竹添町一丁目 電光八三三番 東洋劇場

春風特別週間 十一月三十日낫부터

朝鮮映畫 春風 原作、脚色 安夕影

龍宮이야기 엉터리音樂家

仁寺洞 電話光五〇〇 朝鮮劇場

二十九日부터特別大興行 松竹キネマ大合同超特作 東京日日新聞連載小說의映畫化 龍涎香

ワルツ合戰 全十一卷

永樂町 電本二五三 中央館

朝鮮內不動産抵當 個人貸借金利趨勢

①……朝鮮殖産銀行調査課發表

今年四月 現在로 不動産抵當個人間 貸借金利其他에 對하야 朝鮮殖産銀行 調査課에서는 全朝鮮에 亘한 各金融組合에依하야 蒐集한資料를總括하여가지고서 다음과가튼內容을 發表하엿다

▲金利 昭和十年 四月現在 不動産抵當 個人間貸借의 普通金利(元金千圓內外)의 全朝鮮平均은 日本內地人間 一割五分八厘 朝鮮人間 一割七分五厘 日本內地人、朝鮮人間 一割七分二厘를 示하고 이것을 前年同月의 그것에比하면 內地人間 八厘、朝鮮人間 一分、日本內地人朝鮮人間에 一分의 各低落에該當하고 最高及 最低金利도 各其低落하엿다。

	昭和十年	昭和九年	昭和八年	昭和七年	昭和六年
最高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人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最低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人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普通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人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다시 全朝鮮에 亘하야 道別로 보면 不動産抵當 個人間貸借普通金利(日本內地人間 元金千圓內外)의 最高는 江原道 一割八分五厘 最低는 平安南道의 一割二分三厘로 前年에比하야 最高는 一厘가 높고 最低는 一分七厘가 低下하엿다。

日本內地人間	昭和十年	昭和九年	昭和八年	昭和七年	昭和六年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昭和十年	昭和九年	昭和八年	昭和七年	昭和六年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人、朝鮮人間	昭和十年	昭和九年	昭和八年	昭和七年	昭和六年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다음朝鮮內不動産抵當個人間貸借金利의 累年移動狀勢로 日本內地人間普通金利(千圓內外)로보면 昭和三年의 二割八厘에서 累年低下 昭和十年一割五分八厘로되는 이期間에 五分의低下하엿는데 이것을 昭和三年(一〇〇)으로한 指數로 七七、九로되고 二二、一의 低下를 하엿다

	昭和十年	昭和九年	昭和八年	昭和七年	昭和六年
日本內地人間普通金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指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記의 朝鮮內日本內地人間金利를 昭和十年四月의 日本內地不動産 抵當個人間 貸借金利(千圓內外)에比較하면 日本勸業銀行의 調査에 依하면 最低는香川縣의 八分一厘八毛、最高는青森縣의 一割二分四厘三毛、平均은九分六厘二毛임으로써 朝鮮은日本內地에 比하야 最低는 四分一厘二毛、最高는 六分七毛、平均은 六分一厘八毛의 各高率에該當하야 朝鮮內不動産抵當個人間貸借金利의 高率임을알수가잇다

農省管內米凶作으로 米移出增加의趨勢

◇……輸入關稅低下說關係로 粟輸入은躊躇狀態

二日總督府發表에依하면 今月中의米移出狀況을 보면 既報한과가티 前年同期보다 上旬은增加 中旬은 減收이엇스나 下旬에 五十八萬二千餘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五萬五千五百餘石의增加로 結局十一月中旬累計는 百卄三萬五千四百九十九石으로 前年同期의累計보다 十萬餘石의增加를 示하엿다 이것은 昨年度에잇서 日本內地가 米凶作이엇스나 政府所持米가 相當하야 比較的朝鮮米移出이 顯著한增加를안보앗스나 今年新米穀年度에잇서는 日本內地의米凶作 더구나 政府의所持米가 前年보다 豊富치못한만큼 今後의朝鮮米移出의增加는 自然의趨勢로 보힌다 그러나 粟輸入은 上中下의 三旬을通하야 모두 前年同期보다줄어 그累計는 四萬九千九百餘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六萬三千餘石의 減少이다 이것은新穀期이며 또는 明春에 滿期가되는 粟輸入關稅低下說이 傳하는 만큼 積極的輸入을 躊躇하는傾向이잇는때문이라고한다

▲米輸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計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米穀取引所不振인데 朝取米豆部好績

◇……證券部도賣買高激增으로 大正十二年來新記錄

日本內地에 잇서는 昭和八年十一月 現行 米穀統制法의 實施로 米價가 七、八圓幅의 變動으로 制限된 때문에 價幅의 大變動을 生命으로 삼는 米穀取引所는 凋落의 運命에 잇서 時代의 變化를 痛感코잇고 米穀取引所의 廢止說과 賠償問題까지 떠드는 이때에 잇서 朝鮮에 잇서는 米穀取引所의 業績(六月부터 十一月까지)이 株米共히 朝鮮取引所로서의 新記錄임은 勿論이오 京取、仁取時代로 보아도 大正十二年以來의 新記錄이엇다 卽 賣買高가 株式은 百四十二萬八千五百十株 米는 一千一百五十一萬七千九百石으로 手數料收入은 株式十三萬三千五百九十五圓七十七錢、米十八萬七千七百六十八圓五十錢 纏延日步入三萬三千三百十七圓二十七錢으로 今期總收入이 三十五萬四千六百八十一圓四十七錢이란 好成績이엿다

이는 米에잇서는 地方取引所가 業績不振에 不拘코 仁川만은 大盛況이고 株는 朝鮮唯一의 證券市場이니만치 株、米共히 順調發展을 뵈는터로 日本內地米穀取引所가、米統法의脅威를밧음에反하야 朝取米豆部가 如斯히 殷賑임은 特히 注目된다한다。

下半期營業概況

▲賣買高

	十年下期	十年上期	九年下期
(營業日數)	(五日)	(一四日)	(五日)
株	[illegible] 株	[illegible] 株	[illegible] 株
米 短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日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	百石	百石	百石

	十年下期	十年上期	九年下期
▲手數料外纏延日步	圓	圓	圓
株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日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纏延日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鐵道使用貨車

局鐵開設以來記錄

十一月末의 鐵道局線使用貨車數는 千四百三十九車에 達한바이것은 鐵道局開設以來의 記錄이다 그中 主要한 貨物은 米、石炭、세멘트、棉、葉煙草、雜貨等으로 二萬九千그람에 達하고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割以上의 增加이다 今年은 지난 十一月中旬以來 每日 거의千四百輛臺를 突破하야 活潑한荷動의情勢를 示하고 昨同期의 千百五十輛程度를 動員할수잇슴에對하야 餘裕의活氣가잇서滯貨의念慮도업고順調로輸送하엿다고한다

米穀自治管理案 對立空氣를好化

有賀殖銀頭取談

有賀殖銀頭取는 二日 米穀自治管理案 其他에 對하야 如左히 말한다

管理案은 政府에서 來議會에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다 이에 對하야 日本內地 朝鮮關係方面에서 種種 議論이잇고 또 米穀商의 反對도 잇는듯하나 穀物協會聯合會方面의 이에對한態度에 對해서는 自己로서는 何等干涉치안는다 그代身自己의意思言動에 對하야서도 干涉을 맛기願치안는다 이案은自己가 發案者와가튼 立場에잇는데 勿論大體로 妥當한 案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朝鮮에 不利한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案이 實現못되어도 朝鮮에는 別로影響은업스나 적어도 自己로서는 이案의實施로 米穀問題가 解決되고 米穀自治管理案을 圍繞하는日本內地朝鮮의 對立的 空氣가 一掃되면 以上업는 조흔일이라는 意味로 賛意를가는것이다 日本內地의 金融界는 年內大體 平穩하리라고 생각한다 特히 來年度豫算案이 成立되엇슴은 一般으로 財界에 安定感을 與하야 자못 好感으로 歡迎되고잇다 이러한 意味로 來年은 財界가 더욱 活潑하야질것이며 또種種의 意味에 잇서 非常히 多事多端한 해일것이다 勿論 그間에 處하야 朝鮮의 財界는 朝鮮獨特한 方針으로 나갈것은 當然하다

米穀低資 受入遲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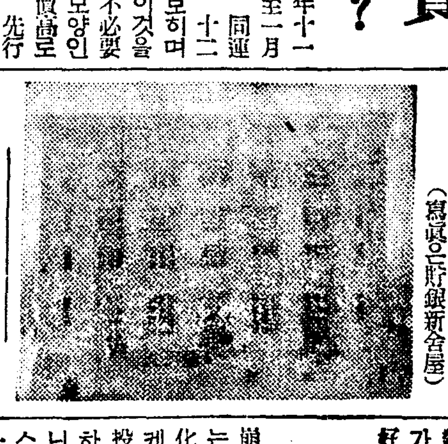
米穀低資運用委員會는 例年十一月末에 열고 十二月末乃至一月上旬 受入하든바 今年의 同運用委員會開催는 遲延되야 十二月上旬中에도 열可望이안보히며 中旬以後가 될모양이다 이것은 日本內地의 米穀低資의 不必要其他自營案等이 關係된 모양인데 朝鮮內의 今年는 米價高로 米資需要가 增大하고 또 先行的으로 金利引下가 되는關係上 金融機關의 所持는 顯著杜塞을 뵈하며 右米穀低資가 今年內受入不能케되면 歲末金融에 影響을 밋치게될가하야 當局府理財課에서도 焦慮中 이라고한다

東拓鑛業業務擴張

東拓鑛業에서는 十一月三十日에 臨時總會를열고 重役을 選하엿는데 이것을 機會로 業務를 擴張키로 決定하고 于先 現在東拓朝鮮支店鑛業課의 業務一切를 繼承하야 金山、炭山을 비롯한 諸工業界에 進出키로 決定하고 漸次朝鮮、滿洲의 鑛業界에 進出함을 보게되엇다고한다

經濟界消息

▲有賀殖銀頭取 渡東中이던바 貯銀新築 落成式때문에 二日 午前七時 歸京 米穀生産費調査會가 十二、十三兩日 東京에 열리므로 이에 出席次 十日頃 渡東 月末歸任豫定



貯銀新築落成式

朝鮮貯蓄銀行新築落成式擧行은 今月二日午後二時부터 各方面人士를 招待하야 新舍屋을 求景케하고 同午後三時卅分同所에서 落成式을 盛大히 擧行하엿다고

(寫眞은貯銀新舍屋)

對米 買 二十八弗十六分 賣 二十八弗四分三
對英 買 一志二片三十二分卅一 賣 一志二片

米穀生産費 調査委員會 十一日에開催

오래동안 延期되여잇든 米穀生産費 調査委員會와 今月十一日에 小委員會 十二日에 總會가 열리기로 決定되엿다는바 朝鮮側으로부터 矢島農林局長(幹事)은 四日午後三時 京城發列車로 渡東하기로 되엇다한다

對外爲替市況

【東京二日電話聯合】▲東京爲替 ……

商況(二日)

株式 後場俄然暴落

前場伸悩 豫算成立好感、歐洲形勢緊張等으로 休日前 買進되든 警戒人氣로 利喰이나와 伸悩寄後 日産低關係도 잇서 小押이다가 結局 再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二十錢低인 百七十四圓九十錢、日産 一圓二十錢低인 七十四圓二十錢、大新 三十錢高인 百三圓七十錢、朝取 一圓九十錢高인 七十七圓丁、朝新 十錢高인 三十二圓三十錢에 各大引되고 帝人 百二十七圓四十錢이엇다

後場暴落 後場은 東新百七十二圓十錢 大新 百一圓九十錢 日産七十三圓四十錢에 暴落寄後 大阪東新百七十圓割等의 崩落으로 買人氣가 諸株急落大引

配當落을 買充 後場은 諸株崩落

日産은 軟派追擊이 不息하얏고 鐘新은 新株拂込說로 奔騰이라가 休日前에

一、國防豫算이 作戰當局의 強硬한 態度로 暗礁이엇스나 圓滿히 成立되어 明年度豫算總額이 二十二億七千萬圓으로 三十日晩閣議에서 決定되엇스니 好感이 크고

二、歐洲情勢는 險惡의 對伊石油輸出禁止問題로 英伊間의空氣가 險惡하야 歐洲政局이 再次混亂에 陷할 念慮가잇스니 戰爭氣分이 再燃되고

三、十一月下旬貿易이 入超로轉하얏다하나 百九十八萬二千圓程度의 入超는 問題가아니것으로 今年의貿易總計算은 改善이 確實할것 等에依하야 諸株市況으로 配當落을 買埋코나서 今前場은 一息이엇는데 日産만은 七十三圓落으로 不勢이엇고 後場一齊暴落이엇다。

押目待의人氣

豫算案成立、歐洲情勢의緊張等으로 全般人氣가 良化되고 前途期待가 相當한데 東新市勢는 材料로보아 伸力이 不足한感이 不無하고 또는 買付된것도 事實이고 大新도 增配를 充分히 買한뒤이니 四國情勢가 一層良好되어야하겟고 取組增加와 相俟하야 目前相當한 下押이잇기를 바라고 警戒人氣인듯하나 市勢自體로서 浮薄性이업는 點을 가지고 上市勢의 壽命이 긴것을 好感할만한바 果如何?

日産의前途觀

日産은 一二分減配를 悲觀하야 崩落되든後도 頹勢가 挽回되지안는모양인데 四國情勢가 크게良化되지안는限 籤者의人氣를 博케되기가어려울다는 말이잇는데 投資家나 一般의주머니가 豊足하며 買方에게 기운도생긴터이니 無論히 七十圓割가튼일은업스리라는 消極的强氣論이잇스며 一步를進하야 一割二分配當이 넉넉히 되는것을 一割에止한것은 悲觀키녕은 큰藥材料로서 整理된 日産을買하는것이조흐며 지금이有力한 買場이라는 强氣論도 傾聽할만하야잇다。

實物株前場取引

▲大同電力 配當落 四九九〇▲同新 同 一一、二〇 ▲鹽水港糖 同 四八五〇▲同新 一二九〇 ▲鮮滿開拓 五七〇▲日本電工 九一三〇 ▲日産新 同 三二、〇〇 ▲宇治電 五二、〇〇 ▲日本郵船 同 三三七〇 ▲東拓 同 三八〇〇 ▲日本製糖配當落 八九〇〇(賣買三〇〇枚)

期米 上鞘發會 低迷

前場頭重 今朝阪地는 中限三十圓六十五錢으로 新甫二限은 三十圓八十七錢인 二十五丁上鞘로發會되고 當地는 中限二十八圓五十一錢으로 新甫二限은 二十八圓七十五錢인 二十四丁上鞘로 發會되엿다 阪地三十一圓丁으로 反高止場함을 伴하야 八十錢의 最高로 場을止하엿는데 當地는 比較的伸悩狀態이엇다

後場低迷 後場은 二十八圓七十二錢에 入丁低이고 七十九錢에止場하다

新市上鞘發會 發會後엔伸悩

新甫二限은 阪仁共히 二十四五丁의上鞘로 發會되엿다 米의季節的關係로 보아서二十餘丁의上鞘發會는 차라리 當然하다고할수잇스나 그러나何等의 強材를 捕捉하지못한만큼 伸力이또한遲鈍하야 阪地九十錢邊의 一躍입……

出廻도稀薄코 移出도亦不振

本年産米의 出廻稀薄은 正租의 檢査嚴重도 一因이거니와 産地農家의 賣惜關係가 重因인모양이다 따라서 産地의賣物도 稀薄하거니와 日本內地의 移出도또한不振狀態로 正米市場은 未曾有의 大閑散을呈한다 要하면 産地의 賣惜으로 正租와如한것은 依然八錢四五厘의 高價를 維持함으로 日本內地와의 採算이二十錢假量이나 맛지아니하며 따라서 日本內地의 買注文이 自然稀少하게되다 더구나 本月부터는日本內地의 各産地의 賣物이 本格的으로殺到를 告하게될으로朝鮮米價가 反落하기外에는 買注文을 發하지안흘것을 또한알수잇다 그러한 모든點으로 政府의買上이나 實現되어 米價의昂騰을 招致하든지 그러치안으면 朝鮮産地의賣物이 一朝湧出한後에야 米界의 波瀾을惹起할수잇다 그럼으로 期正兩界는 어떠한 動機를 期待하는狀態로 時日을 [illegible]할뿐이다

吉村取引店

今日財界(二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 一石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illegible]
銀 一匁賣	[illegible]

◆株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大阪新	[illegible]	[illegible]
大阪化學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高無 現物	[illegible]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新甫二限은 豫想에 反하야 大賣物이 업고 持米減少를 보고 正米側은 低値를意外하야 賣함으로 二十二錢의 上鞘이오 賣方은 이 上鞘發會를보고 沈默을 守하야 株高와 正米緊縮出로 引締하얏고 石井買持로 一圓臺를 乘換▲賣方 地場強氣中東側乘換 來客側▲買方 株式側朝鮮側乘換 木村自己

各地正米

京城不變 月初이나 觀望으로 買氣가 不振하야 閑散裡에 保勢이엇다 三等廿八圓卅五錢四等廿八圓〇五錢

仁川保勢 繼續하야 賣物이 [illegible]을示하야 十錢高唱이엇는데 三等二十八圓八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illegible] 적으나 賣不拔으로 겨우保勢이엇는데 ㊀三等二十八圓三十錢 四等二十八圓〇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釜山少弱 市場出荷가 六千叺을 增加하고 移出側의 採算的買進이 散見되엇스나 積極的買進이업고 定期頹軟이나 氣配 五錢低이엇는데 三等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八圓 一等白米十一圓九十九錢

大邱軟調 月初이나 市場은 閑散으로 氣配가 [illegible]低이엇는데 三等廿八圓四十錢 四等廿八圓 一等白米十一圓三十錢

群山反撥 繼續하야 産地賣物이 稀少하고 買氣가 好轉하야 反撥으로 減退하고 阪神의强硬으로 二十錢反撥이엇는데 ㊂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木浦強硬 賣物의 少量이잇슬뿐으로 顯著한 賣買가업섯스나 阪神의 少强과 群地正租가 比較的高價等으로 人氣가 少强

金.銀.白金
京城德力
代金引換販賣 地方注文 金先料送要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京城府明治町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illegible]株式會社
京城府大和町二ノ一 日生ビル一、二階
電話本局 四六 四七七 九 [illegible]

市場六感

株 新甫市場은 우선 前月末 活躍에 對하야 警戒가잇서 穩健 ▲月初에 미리뛰기보다는 歲末掉尾一振을 期하는 모양인가? 彪大豫算은 再過迫을 告하야 內로는 財界安定 外로는 日本에 有利展開等에 立脚한 市勢의 前途야말로 恒例의 年末高期待에 一層기운을 삼을듯 ▲明春議會解散의 虞、中國의 反日態度等 걱정거리가 아조업는것이아니나 ▲日中問題는 情勢가 何如間實하야다가는 큰코닷칠것이오 政局不安亦一時的 資材料가될듯 말듯하겟스니 떠러지거던 買하는 根本方針만은 株守코明春까지長期思惑을 해봄이 安當할듯한바 果如何? ▲高價飛付만은 언제나 조심할일임은 勿論

米 新甫二限은 二十四丁上鞘로 發表되엿다 쌀의季節的關係가 그러함으로 上鞘發會는 되엿스나 또한伸悩 ▲果然어떠한 特殊한 強弱材가突發하기外에는 膀落間에 波瀾이업슬것을可期 ▲日本內地는 本月부터 비롯오 産地의賣物이 旺盛할모양인데 果然어떠한程度의 現象을招來할지 此가疑問 ▲朝鮮産地의賣物은 正租의 檢査嚴重 又는共販의賣惜勸喩로 賣物有無의狀態를呈할뿐 ▲그럼으로 正租의市勢는 依然八錢四、五厘의 高價를維持하고 그反映으로는 日本內地와의 採算이不適하야 移出도또한不振 ▲그런즉 日本內地의 米價가昂騰하든지 朝鮮의 米價가 反落하지 안으면賣買의旺盛을 見하지못할모양 ▲何如間米價의 前途大勢가 昂騰할것은 누구나 是認하는바이지만 一般人氣와의 背馳로 一朝反落을 告할지도 亦未知 ▲硬軟共히 一波瀾을 일으키기外에는 또한作戰할 妙味가업슬듯

金融(二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illegible]

商品(二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카큐期変◆ ◆綿油冲價◆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鯟搾粕冲價◆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購入

五圓五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産業組合經由多量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

株式(二日)

◆京取延期◆ ◆大阪短期取組◆ ◆實定代引日步◆ ◆新取短期賣買高◆ ◆東京長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長期◆

[illegible]	[illegible]

期米(二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內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illegible]

商品(二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illegible]